

13 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조충제
최윤정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조총제 · 최윤정

국문요약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17
■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21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2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8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44
■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67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68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73
■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87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89
2. 정책 과제 및 전략	93
■ 참고문헌	99
■ 부록	103
■ Executive Summary	109

표 차례

표 2-1.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업종별 비중	32
표 2-2. 인도와 주요 투자대상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경영 상태	41
표 2-3. 우리나라의 당기순이익 흑자 상위 10개 국가(2010년)	42
표 2-4. 인도 현지법인의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2006~10년)	43
표 2-5. 인도 현지법인의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2006~10년)	43
표 2-6. 인도의 10대 FDI 투자국 추이	47
표 2-7. 인도의 10대 FDI 업종(순위는 누적 기준)	51
표 2-8. 일본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57
표 2-9. 일본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58
표 2-10. 미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61
표 2-11. 미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61
표 2-12. 중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62
표 2-13. 중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63
표 2-14. 한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64
표 2-15. 한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65
표 3-1.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	75
표 3-2.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단위근 검정 결과	81
표 3-3. 한국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3
부록 1. 우리나라의 제조업 세부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104
부록 2.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106

그림 2-1.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	23
그림 2-2.	신고 건수 대비 신규 법인 수 비중	24
그림 2-3.	신규 법인당 평균 투자 규모	24
그림 2-4.	대인도 진출 형태별 투자 추이	27
그림 2-5.	우리나라의 대인도 기업 규모별 투자 추이	28
그림 2-6.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업 규모별 투자 추이	29
그림 2-7.	제조 및 비제조 업종별 추이	30
그림 2-8.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FDI: 대인도 vs. 대세계 비교 ..	34
그림 2-9.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주요 업종별 FDI: 대인도 vs. 대세계 비교 ..	36
그림 2-10.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형태별 규모 추이	39
그림 2-11.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형태별 비중 추이	39
그림 2-12.	우리나라의 대인도 진출 동기의 변화	40
그림 2-13.	연도별 인도의 FDI 추이	45
그림 2-14.	인도의 주요 FDI 투자국(2013년 7월까지 누적 기준)	46
그림 2-15.	인도로 유입되는 FDI 상위 10대 업종별 비중(누적 기준)	50
그림 2-16.	주요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	53
그림 2-17.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산업별 추이	55
그림 2-18.	인도기업과 제휴진출 시의 장점(중요도별)	59
그림 4-1.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과제	88
그림 4-2.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향후 3년간 현지사업 운영 방향	9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3년 12월 우리나라와 인도는 공식적으로 수교 관계를 체결하였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했던 인도는 같은 날 북한과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인도 수교 이듬해인 1974년 우리나라와 인도는 무역 및 문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76년에는 과학기술협정, 1985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1992년에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양국 기업의 투자 활동에 중요한 투자보장협정은 수교 이후 23년이나 지나 체결되었다. 1993년 라오(Narashima Rao) 총리가 인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한 이후인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답방하면서 동 협정은 체결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대인도 수출도 가속화되면서 한·인도 관계는 정치, 외교적 관계보다는 경제협력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¹⁾

한국과 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투자와 교역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인도는 G7 이외 국가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²⁾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인도 경제협력 수단으로서 투자와 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투자재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인도는 상대

1) 우리나라와 인도 간 경제협력의 역사적 흐름과 부문별 현황은 조충제 외(2012)의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pp. 228~251를 참고.

2) 인도 재무부는 지난 2005년 소위 선진국가 그룹인 G7 이외의 국가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적으로 교역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자국 산업과의 마찰 및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FD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경제성장, 고용증대, 빈곤해소,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해 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송비,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 등을 감안할 때 대인도 투자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이다. 최근 국내에서 산업의 공동화,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기업의 환류 등이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중국 다음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로의 투자확대는 더욱 중요한 이슈이다.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시장 진출 경쟁에서 밀릴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회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 등 경쟁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상무부의 2000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가별 FDI 자료에 따르면³⁾ 우리나라의 FDI는 약 1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약 0.6%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148억 5,0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7.4%를 차지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을 압도했던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가 최근 일본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액은 같은 기간 218억 3,000만 달러로 조세피난처(tax-haven)인 모리셔스를 제외하면 대인도 FDI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기

3)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DIPP.

업 유치를 위한 중국과 인도 정부의 공단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등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마저 대인도 투자에 적극 나설 태세여서⁴⁾ 우리로서는 대인도 투자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추이와 특징, 투자 결정요인 분석 등을 활용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상기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 동기 및 투자 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세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 실태 및 애로요인 등을 기존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양국간 수교 이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4) 2013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만모한 싱, 리커창 양국 총리회담에서 양국은 국경협력 외에 중국기업들을 위한 인도 내 전용공단 7개 조성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인도, 중국기업 전용공단 7곳 추진」, 2013년 10월 23일 참고).

대인도 투자의 특징이 대인도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인도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정량적인 방법으로도 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특징을 반영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FDI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대단히 많다. 교역과 함께 FDI는 경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정책 당국은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FDI 통계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FDI 연구가 여러 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⁵⁾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적어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 같다.⁶⁾ 또한

5) 최근 국내 연구자에 의한 대중국 투자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논문만 최소 20여 편 이상이다.

6) 2013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FDI 중 1.3%에 불과하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9월 10일).

인도 측 FDI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등 분석에 애로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⁷⁾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에 관한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부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OTRA와 무역협회의 연구는 인도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인도 투자 트렌드 및 정보, 사례, 투자 유의사항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⁸⁾

한편 KIEP는 그동안 인도 경제 및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이슈만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유태환 외(2005)는 2004년까지 인도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조충제 외 3인(2011)은 2011년 말 기준 대인도 진출 한국기업 530여 곳을 조사하여 387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중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조충제 외(2012)는 한·인도 양자 간 경제협력을 일본, 싱가포르, 중국과 인도와의 양자 간 경제협력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광수 외(2003)는 양국 전문가를 동원하여 양국간 정치외교, 경제, 문화 협력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도 거의 없다. 국내 연구자에 의한 연구로서는 유일

7) 특히 국가별 FDI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8) 대표적인 연구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박민준 외 2011),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정무섭 2009), 『인도시장 진출전략 10계명』(송송이 2013) 등이 있다.

하게 Park and Lim(200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은 인도의 시장 규모와 생산요소 가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2004년 말 기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74개사로부터 확보한 정성적 설문조사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계열로 정량화된 대인도 투자 특징을 변수로 사용한 본 연구와는 다르다.

국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Anantaram(2004)은 1991~2002년 인도의 주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여건, 경제의 집적화 정도(agglomeration economies), 주별 투자 인센티브가 인도의 주별 FDI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ahni(2012)는 1992~2008년 인도의 FDI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의 GDP, 물가, 시장 개방 정도가 FDI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기존 선행연구들은 모두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한·인도 수교 40년 동안의 대인도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계점 또한 갖고 있다. 매우 방대한 분석 작업임에도 예산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현장 조사보다는 통계자료와 2차 자료에 많이 의존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통계자료는 가급적 원자료를 직접 획득하여 가공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을 보다 치밀하게 시도하지 못했다. 대인도 투자의 주요요인 모두를 변수화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며 기타 통제변수들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한·인도 수교는 4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1980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축적된 최근까

지의 시계열 통계자료가 약 25년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회귀분석을 위한 거의 최소한의 시계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측의 FDI 통계자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보다 더 제한적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⁹⁾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금액은 2013년 6월까지 누적 기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전체 비중의 1.3%)이다.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는 696개로 11위이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은 206개로 전체 진출기업 수의 약 30%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8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형태로는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이 623개로 90%를 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도 약 28억 달러로 대인도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98%)을 포함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비제조업 부문의 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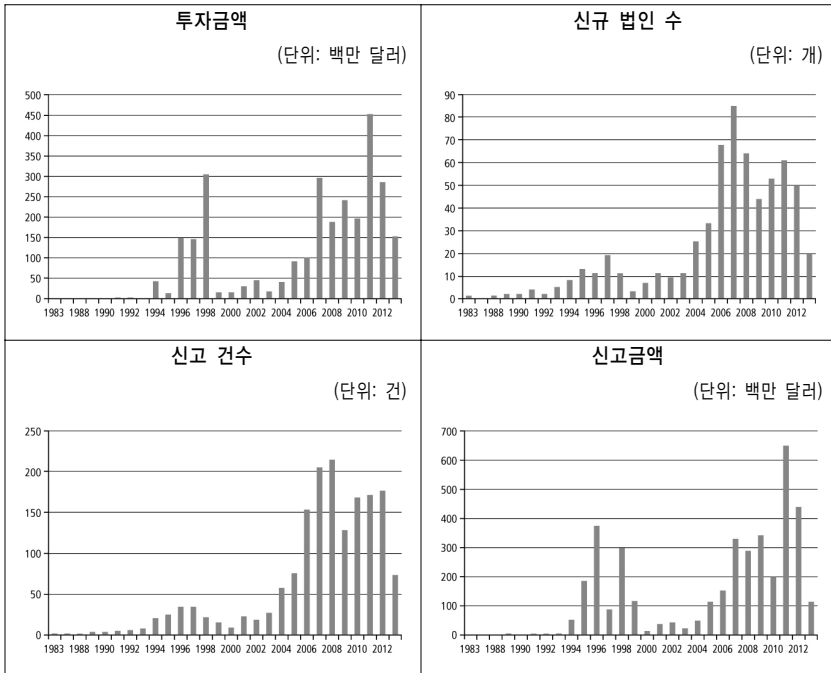
가. 시기별 투자 추이

한국의 대인도 FDI는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1993년 양국간 정상급 외교가 이루어진 이듬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기점으로 상승했던 대인도 FDI는 2005년 이후에 다시 한 번 급증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최고 수준인 4억 5,20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대인도 FDI는 2012년에는 2억 8,602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신고 건수는 2006년에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4건을 기록한 이후

9) 제2장 1절과 2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하여 주제별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2-1. 한국의 대인도 FDI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9월 10일).

2012년까지 계속 150건 이상의 투자건수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신고 건수의 증가와는 달리 신고 금액은 2011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중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신고 건수당 신고 금액이 2000년대 중반보다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신고 건수 대비 신규법인 수의 비중도 점차 낮아져¹⁰⁾ 2007년 이후 그 비중이 4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0년 후반부터는 새로 진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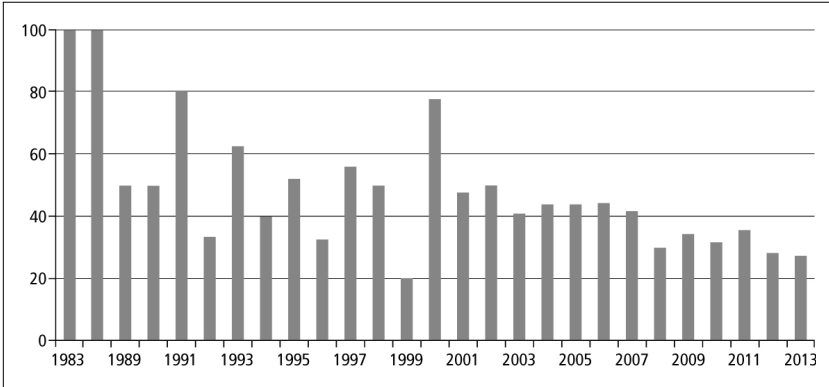
10)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통계에서 ‘신고건수’는 신규 신고 외 증액 신고건도 포함하고 있으며, ‘신규법인수’는 현지 법인에 대한 최초 송금건을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용어사전).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 진출업체의 투자 확대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법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1990년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 11개 신규 법인이 평균 2,778만 달러를 투자한 1998

그림 2-2. 신고 건수 대비 신규 법인 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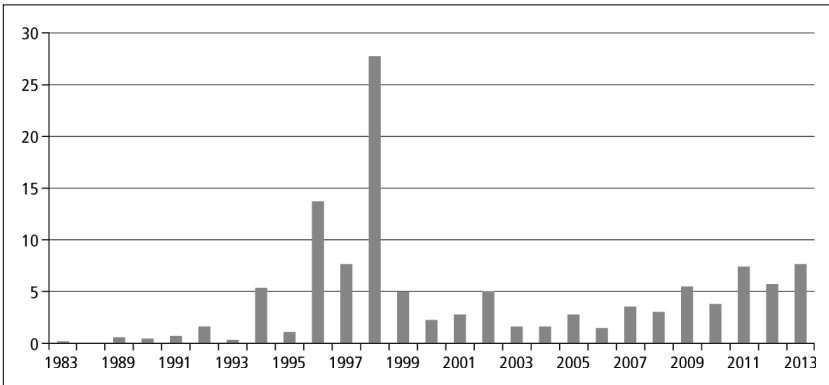


주: 신고 건수 대비 신규 법인 수 비중은 신규 법인 수를 해당 연도의 신고 건수로 나눈 것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9월 10일).

그림 2-3. 신규 법인당 평균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신규 법인별 평균 투자 규모는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을 신규 법인 수로 나눈 것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9월 10일).

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역시 11개 신규법인이 진출하여 평균 1,366만 달러를 투자한 1996년이 높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진출기업 수는 많아졌으나 개별 기업의 투자 규모는 1990년대 후반보다 오히려 작아졌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연도별, 시기별 주요 투자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통계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981년이다. 1981년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1,000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만 정확한 사업 내용이나 현재까지 존재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 1983년에 제조업(석제품 가공)에서 1개 업체가 12만 달러의 투자를 실시한¹¹⁾ 이후로 소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다가, 첫 번째 대인도 투자의 전성기를 맞은 것은 인도가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해외투자를 감행했던 시기와도 맞물려 1995~98년 동안 매년 1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인도에 신규 투자하였다. 특히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양국간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당시 인도의 전체 직접투자유입액의 약 9%가 우리나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최초로 3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1999년 초반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약 13%까지 높아져 한국은 모리셔스, 미국, 영국 등에 이어 5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11) 1983년 이루어진 첫 번째 제조업 투자는 동인석재산업이 인도 마드라스에 석제품 가공 수입을 위하여 12만 달러를 투자한 데서 시작되었다(김병순 2008, p. 262~263). 하지만 이 회사도 결국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자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급감했다. 1999년의 투자금액은 이전 3년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거의 2000년대 전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대인도 투자는 다시 살아났다.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투자가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투자금액이 4억 5,209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의 대인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투자 규모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는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이다.¹²⁾

나. 진출 형태 및 기업 규모별 투자 추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013년 6월까지의 누적금액 기준으로 97.7%가 현지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점은 18개(2.6%)로 5,821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지사 형태로 진출한 기업 수는 55개(7.9%)이며 투자금액은 749만 달러(0.3%)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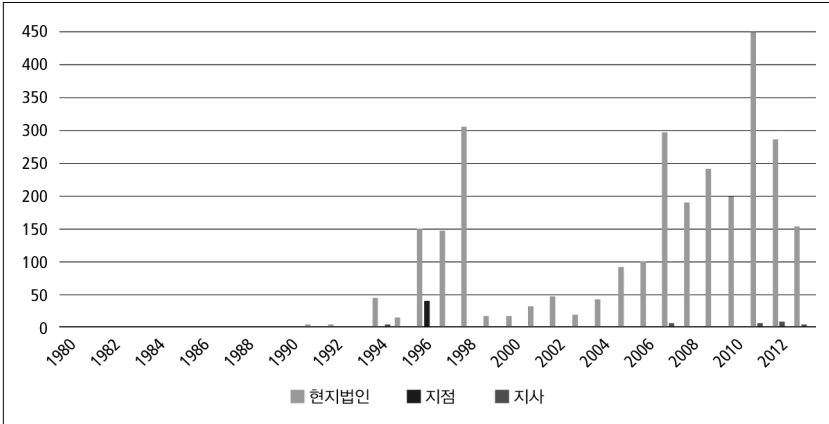
지점의 경우 1996년 1건에 3,800만 달러가 최초의 투자인 동시에 가장 대규모 투자였다. 이후 지점 투자는 2007년에 562만 달러, 2011년에 374만 달러, 2012년에 775만 달러, 2013년에 166만 달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사 형태는 투자 규모가 더 적어서 첫 지사 투자가 이루어진 1981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투자액 합계가 749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투자진출이 대부분 현지법인 형태인 것은 중국 등 다른 나라를

12) 대인도 FDI의 국가별 비교는 3절에서 주로 다루었다.

그림 2-4. 대인도 진출 형태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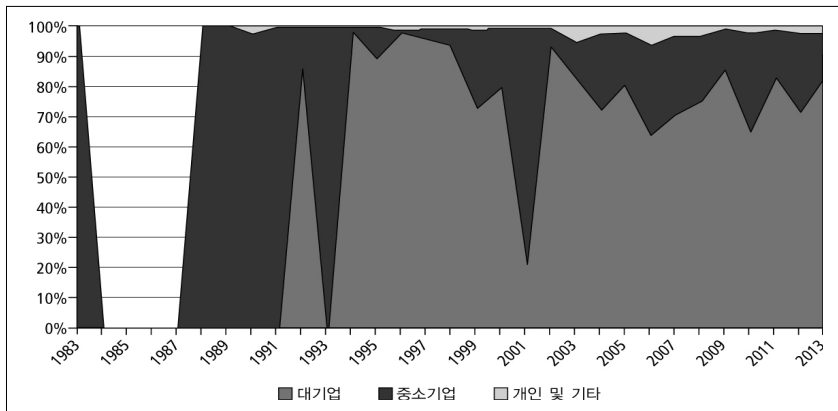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대인도 투자만의 특징은 아니다. 우리나라 1위 투자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도 금액 기준으로 현지법인 투자가 98%를 넘는다. 이처럼 법인 형태의 투자에 치우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심화되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진출기업 수로 보아도 대중국 현지법인 형태 투자는 2000년대 중반 한때 95%대까지 비중이 낮아졌지만, 후반부터는 다시 98%대로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 대인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전무하던 대기업의 인도 진출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1992년 대기업 투자점유율이 87%로 급증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거의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다시피 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대인도 투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7%, 중소기업은 약 18%이며, 그 외 개인(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투자

비중은 1% 조금 넘는 수준이다. 1994~98년에는 대기업 투자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독주는 2000년대 들어와서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74%에 달하는 투자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은 24%, 기타 개인(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의 투자가 2% 미만의 비중으로 여전히 적지만 그 이전보다는 높아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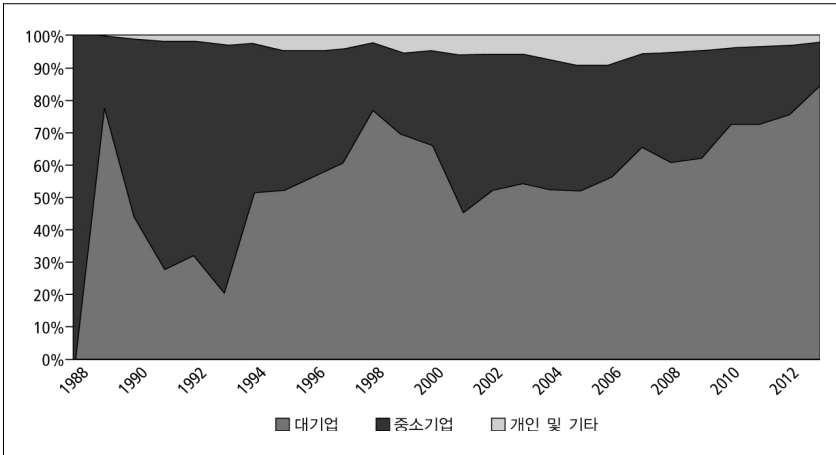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와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2013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7%로 대인도 투자에 비해 17%포인트 정도 낮다. 대신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비중은 대인도 투자 비중에 비해 각각 약 두 배 및 세 배 높은 31.5%와 3.6%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인도의 경우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그림 2-5. 우리나라의 대인도 기업 규모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9월 10일).

그림 2-6. 우리나라의 대중국 기업 규모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9월 10일).

다. 업종별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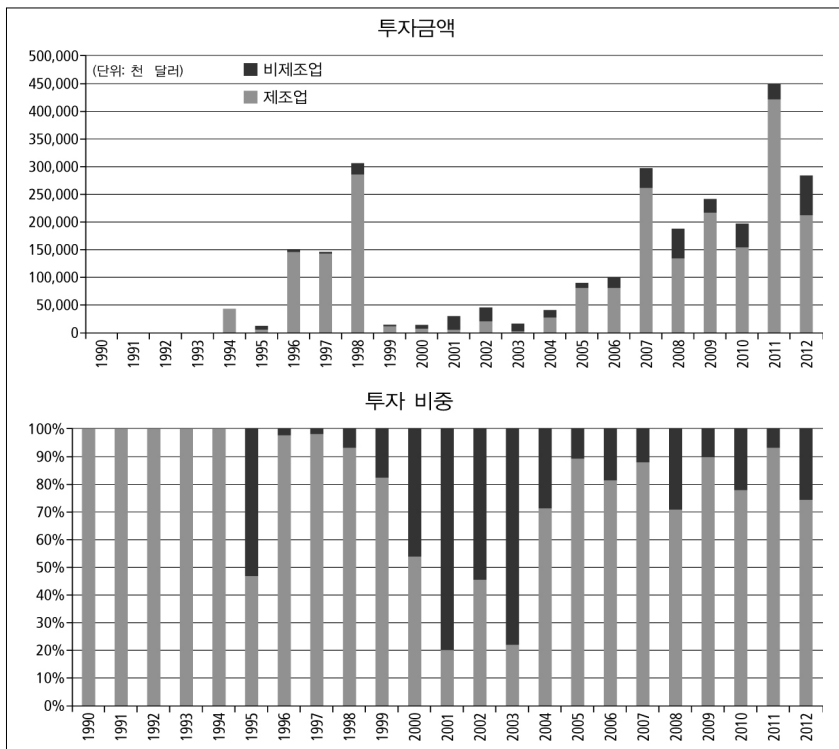
1) 시기별 추이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는 거의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다. 2013년 6월 말 누적 기준 대인도 투자금액의 약 85%를 제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약 78%보다도 크다.

제조 및 비제조업으로 나눈 업종별 투자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투자 건수 및 규모는 작았지만 모두 제조업 부문 투자로만 이루어졌다. 실제로 1995년까지 투자금액 중 제조업 비중이 100%를 차지하였다. 1980년 건설업과 1989년 광업은 각각 투자 신고는 하였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 신고는 있었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제조업 분야 투자는 1995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조금씩 업종이 다양해졌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1995년 도매업(1건, 250만 달러)과 부동산 및 임대업 투자(3건, 484만 달러)가 이루어졌다. 1996년에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분야(1개 업체, 2만 달러)에 이어 금융 및 보험업(1개 업체, 3,812만 달러) 진출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투자 신고만 여러 차례 되었던 건설업은 1997년에서야 2개 법인의 83만 달러 투자가 이루어졌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1개 업체(15만 달러)가 진출하였다.

그림 2-7. 제조 및 비제조 업종별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일).

1998년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여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인 3억 달러를 돌파할 당시 제조업 및 비제조업 투자도 각각 동시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에서 신규 법인 10개가 설립되면서 투자액이 2억 8,516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처음으로 투자액이 2,000만 달러를 넘었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숙박 및 음식업(1개 업체, 1만 5,000달러) 분야 투자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투자업종도 보다 다양해지고 투자 규모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 2001년에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에서 20년 만에 두 번째 투자진출(1건, 2,000달러)이 이루어졌다. 2003년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건, 4만 달러)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개, 10만 달러) 등으로 투자 분야가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운수업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1건, 2,000달러),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투자도 최초로 이루어졌다(1건, 19만 7,000달러). 2005년에는 교육 서비스업(1건, 2만 2,000달러)이 추가되었다. 2007년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1개 업체가 진출하여 약 13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10년 처음 투자진출이 이루어진 분야로서 1개 업체가 약 3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0년부터는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투자가 나타났다. 2012년에는 기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인도 진출이 이루어졌다(2건, 3,878만 달러).

하지만 여전히 대인도 투자를 업종별로 구분한 [표 2-1]을 보면, 우리

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까지의 제조업 분야 투자금액과 진출기업 수는 약 24억 달러와 373개로 각각 85%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업종별 비중

업종 구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제조업	373	2,409,091	84.8
도매 및 소매업	73	197,129	6.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47,173	1.7
금융 및 보험업	2	44,227	1.6
건설업	41	40,752	1.4
운수업	18	18,399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	17,674	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12,521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12,606	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	11,477	0.4
교육 서비스업	12	8,377	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9,238	0.3
농업, 임업 및 어업	5	4,182	0.1
숙박 및 음식점업	26	4,021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2,450	0.1
광업	0	0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0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02	0.0
합계	623	2,839,720	100.0

주: 기간은 1981년~2013년 6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일) 필자 재구성.

2) 업종별 추이

가)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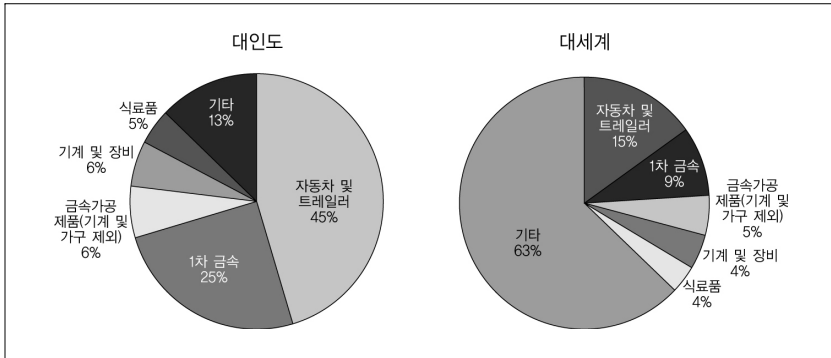
대인도 제조업 투자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투자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제조업 투자는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평균 투자 금액도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제조업별 투자 규모를 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 1차 금속 제조업(24.9%) 두 업종에만 전체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금속가공제품이 6.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5.8%, 식료품 부문이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투자 비중과 크게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투자 총액은 2013년 6월 말까지 총 2만 7,369건에 약 874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전체 투자금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대인도 투자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 비중이 높은 부문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1차 금속제조업으로 각각 약 15%와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비중 순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인도 투자의 경우 이 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주력 제조업종 중 하나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대세계 4위)은 대인도 투자 업종 중에서는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운송장비(대세계 7위),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대세계 8위)도 인도에서는 각각 15위, 18위에 머물고 있다(부록 참고).

그림 2-8. 우리나라의 제조업 주요 업종별 FDI: 대인도 vs. 대세계 비교



주: 기간은 1981년~2013년 6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일) 필자 재구성.

한편 식료품 제조업의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10위인데 대인도 투자 순위는 5위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도 대세계 투자 순위(19위)보다 대인도 투자 순위(11위)가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은 인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제조업 부문 평균 투자금액은 약 646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평균 투자금액 319만 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제조업 업종별 평균 투자금액은 1차 금속이 2,853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세계 1차 금속 평균 투자금액 1,045만 달러의 세 배 가까운 규모이다. 제조업 중에서 다음으로 평균 투자 규모가 큰 식료품 부문은 대세계 평균 금액인 약 189만 달러보다 6배 이상 많은 1,22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 평균 투자금액도 995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약 855만 달러보다 높았다. 이것은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종이, 목재 부문 대인도 진출기업 수는 1~2개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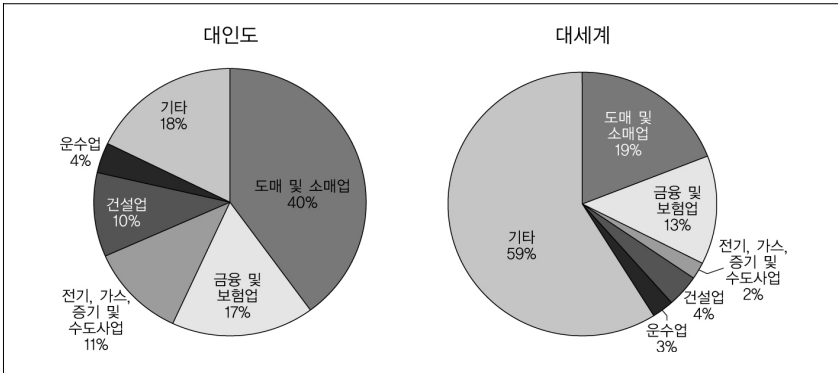
대적으로 적고 업체당 투자금액도 2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 비제조업

2000년대 들어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인도 투자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해졌지만 제조업 부문과 같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비제조업 평균 투자금액도 제조업 부문과 달리 우리나라 전체 비제조업 평균 투자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비제조업 부문 투자 비중 1위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2013년 6월 말 누적 기준으로 총 79개 법인에 약 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는 대인도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가 최근에서야 소매업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일부만 개방한 것을 고려하면 이 부문은 무역업 등 대부분 도매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 다음으로 대인도 투자 비중이 높은 비제조업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최근까지 총 4건에 약 8,3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2006년 지점 1개와 지사 1개, 2007년 법인 2개가 각각 투자되었다.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과 건설업이 각각 약 5,670억 달러와 5,000억 달러 이상 투자되어 각각 10% 이상의 투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의 대인도 투자는 2012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규 법인 수도 아직 4개에 불과하다. 건설업은 1996년 처음으로 2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보다 훨씬 빨리 대인도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규 법인 수 및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200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본격적인 투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인도 투자 비중 순위 5위인 운수업도 2004년 처음 대인도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이다. 반면 대인도 투자 비중 순위 6위인 부동산 및 임대업은

그림 2-9.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주요 업종별 FDI: 대인도 vs. 대세계 비교



주: 기간은 1981년~2013년 6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일) 필자 재구성.

1995년부터 투자가 일찍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든 경우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의 비제조업 부문 투자 비중 1위는 광업이다. 2013년 6월 누적 기준으로 광업에 408억 달러가 투자되어 있다. 특히 광업은 2006~10년 최저 35%에서 최고 200%의 높은 성장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에 반해 인도에 대한 광업 부문 투자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89년 67만 달러의 투자 1건이 신고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의 비제조업 부문 투자 비중 2위는 도매 및 소매업이다. 이 부문은 우리나라 해외투자 초창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비제조업 분야로 2013년 6월 기준으로 약 279억 달러를 기록하여 비제조업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을 고려하면 대인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40%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투자가 많은 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같은 기간 전 세계

713개 법인에 약 196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인도의 투자 비중보다 조금 낮다. 다음으로 투자 비중이 높은 부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각각 11.4%와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인도 비제조업 부문 투자 비중 3위와 4위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그 비중은 각각 약 2%와 4%로 각각 10위와 6위의 투자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비제조업 분야 투자 1위를 차지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건설업 투자는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제조업 부문의 평균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대체로 비슷하다. 반면 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 대인도 평균 투자금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투자금액과 비교할 때 각각 1/3과 1/4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비제조업 투자 중 신규 법인 수 기준으로 도소매업 다음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이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이에 비해 대인도 비제조업 투자의 경우 도소매업과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평균 투자금액도 약 1/6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다.

인도의 경우 농림 및 수산 자원은 물론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대인도 농림수산업 부문 투자는 1991~93년까지 연평균 35만 달러 정도 이루어지다가, 이후 15년간 전혀 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2년 약 200만 달러의 비교적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부문 평균 투자금액은 약 8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비조업 부문 투자 평균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업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단 한건의 투자도 이루지지 않았다.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가. 투자 형태 및 진출 동기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¹³⁾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 형태는 2009년만 해도 단독투자가 76%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단독투자의 비중은 조금씩 축소되어 2013년 6월에는 60%까지 줄어들었다. 공동투자 형태의 진출은 2009년 20% 가까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비중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2013년에는 55만 달러(0.4%)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 현지 업체와 지분을 공유함으로써 경영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합작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합작투자의 비중이 2009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3년 6월 기준 투자 규모는 5배, 비중은 35%로 7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¹⁴⁾

13) 2009년 이전의 진출 동기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로 발간된 『인도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이순철 외 2006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4) 공동투자와 합작투자는 모두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함께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합작투자는 대개 지분의 소유까지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이다(한국수출입은행 용어사전).

그림 2-10.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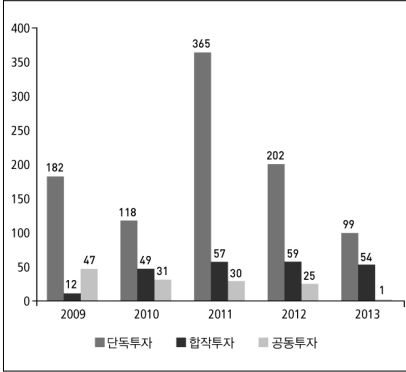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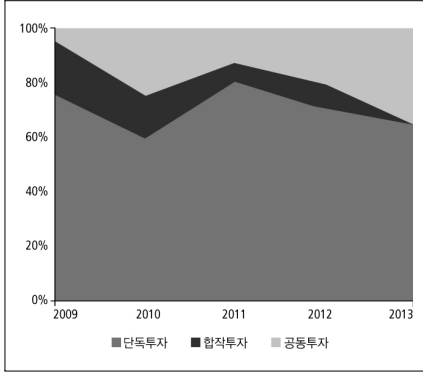


그림 2-11.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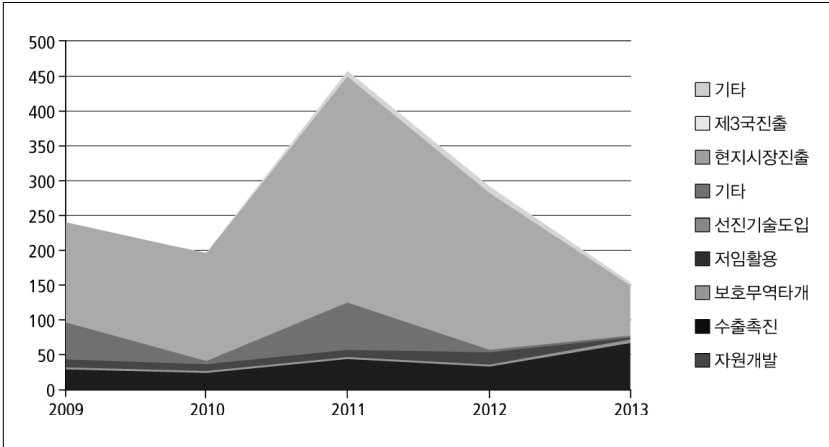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0일).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진출 동기 1순위는 ‘현지시장 진출’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동기를 자원개발, 수출 촉진, 보호무역 타개, 저임 활용,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제3국 진출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지난 2009~13년 상반기까지 계속 현지시장 진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진출 목적은 ‘수출촉진’이었으며, ‘저임의 노동력 활용’은 평균 5%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0~12년 기간에는 70%가 넘는 기업들이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인도에 투자하였으나 2013년 들어 현지시장 진출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진 반면 매년 10%대 초반에 그치던 수출 촉진 동기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5%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 인도를 경유한 제3국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0.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며 2012~13년에는 전혀 없었다.

그림 2-12. 우리나라의 대인도 진출 동기의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0일).

한편 KIEP(2011) 조사에 따르면¹⁵⁾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으며,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나. 경영 성과

한국수출입은행(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현지법인 경영 성과, 재무 상황, 투자효과는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5) 조충제 외 3인(2011).

16) 김병순(2008), p. 272에서 재인용.

표 2-2. 인도와 주요 투자대상국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경영 상태

(단위: %, 백만 달러)

	항목	인도	중국	베트남	미국
경영 성과	매출총이익률	17.4	11.5	10.0	9.2
	영업이익률	6.4	2.5	-0.3	1.3
	경상이익률	7.6	2.5	-1.1	1.0
	당기순이익률	5.0	2.2	-1.4	0.5
재무 상황	부채비율	155.4	163.4	196.3	403.8
	유동비율	125.8	105.2	84.7	102.1
	차입금의존도	17.2	28.0	40.0	29.1
투자 효과	투자수익률(A/B)	77.8	30.4	-3.7	3.5
	투자수익(A)	278	1,703	-9	186
	투자잔액(B)	358	5,599	251	5,304

주: 2006년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7), pp. 280~296에서 발췌 및 재정리.

2006년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17.4%로 중국(11.5%), 베트남(10.0%), 미국(9.2%)보다 훨씬 높았다. 이밖에 영업이익률(6.4%), 경상이익률(7.6%), 당기순이익률(5.0%)도 베트남,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국보다도 두 배 이상 높았다.

재무 상황도 다른 나라 진출 기업보다 훨씬 좋았다. 부채비율(155%)과 차입금의존도(17%)는 가장 낮은 대신 유동비율은(126%) 가장 높았다. 투자잔액 대비 투자수익 비율인 투자수익률 또한 인도 진출 기업이 가장 높은 약 7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 진출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 다른 한국수출입은행 자료(2010)에 따르면, 2009년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8억 2,000만 달러로, 중국의 26억 8,000만 달러 다음으로 높았으며, 2010년에는 약 4억 달러로 중국(41억 6,000만 달러),

표 2-3. 우리나라의 당기순이익 흑자 상위 10개 국가(2010년)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당기순이익
1	중국	4,158,449
2	브라질	1,423,180
3	인도네시아	674,226
4	인도	404,910
5	오스트레일리아	390,032
6	태국	306,368
7	말레이시아	292,786
8	러시아	284,372
9	슬로바키아	271,693
10	폴란드	191,56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1), p. 50.

브라질(14억 2,000만 달러), 인도네시아(6억 7,000만 달러)에 이어 당기순이익 상위 4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 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대브라질 투자의 56%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도는 2011년에도 중국, 미국, 슬로바키아, 러시아에 이어 투자수익 상위 5개국에 포함되었다.¹⁷⁾

인도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효과도 점차 확대되었다. 2006년 4억 달러를 돌파한 순수출 효과는 2010년 9억 6,311만 달러에 달하였다. 수입 유발효과보다 수출 유발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같은 기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17) 한국수출입은행(2012), p. 50. 여기에서 투자수익 = 당기순이익 × 한국지분율 + 대부이자 + 로얄티 등 기타 지급액, 투자수익률 = 투자수익÷투자잔액이다.

표 2-4. 인도 현지법인의 순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2006~10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수출(천 달러)	414,832,000	544,656,000	869,581,000	596,089,713	963,108,586
무역수지 개선효과(%)	176.1	157.7	254.2	173.3	277.3

주: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수출 유발효과와 수입 유발효과의 차이로 산정함. 수출 및 수입 유발효과는 분석 대상 현지법인의 한국기업과의 수출 및 수입 금액을 한국인 투자자의 투자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1), p. 294.

표 2-5. 인도 현지법인의 투자수익 및 투자수익률(2006~10년)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수익(천 달러)	212,125	248,115	96,290	193,388	322,491
투자수익률(%)	90.1	71.8	28.1	56.2	92.8

주: 투자수익률은 현지법인의 투자수익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1), p. 300.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현지법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던 2008~09년을 제외하면 투자순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액 대비 투자수익이 2010년에는 약 93%까지 상승하였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세계 투자의 수익률이 약 22%인 것과 비교해보면 대인도 투자 수익률은 4배나 높다.

한편 조충제 외 3인(2011)에 따르면, 인도 진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입지 선정 사유는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동종업체가 밀집해 있거나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현지 인건비는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고,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중국보다는 낮았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난 3년간의 성장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부분 높았으며, 향후 3년간에도 성장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비제조업의 입지 선정 이유와 내수 판매의 비중, 최근 및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도 제조업 부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 동기 1순위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 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텔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도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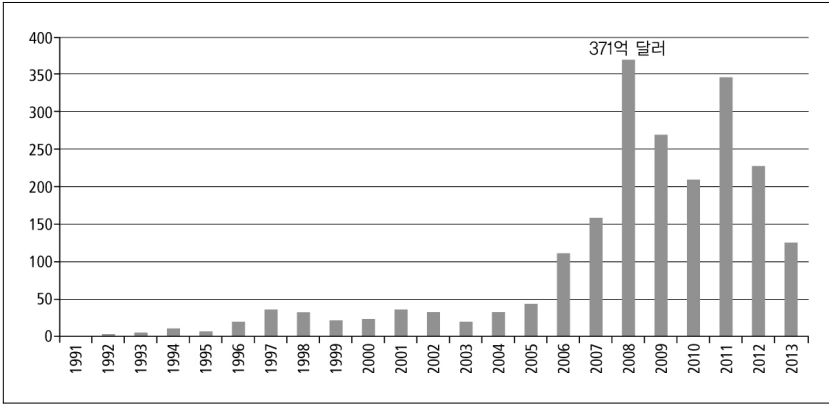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세계 주요국이 경기둔화를 겪었던 2008년 전 세계 FDI가 전년대비 42% 감소한 1조 달러로 위축된 데 반해 인도는 오히려 전년대비 133% 가량 증가한 371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다. 사상 최고의 FDI 유치 실

18) 3절에서는 인도의 FDI 유입 국가 및 업종별 비교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도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인도 FDI 통계는 재투자 및 기타 자본금의 형태로 인도 중앙은행에 집계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되어 있는 등 집계 방식상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2-13. 연도별 인도의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2013년은 1월~8월까지.

자료: SIA Newsletter, 웹사이트(2013. 10. 15).

적을 기록한 동시에 세계에서 FDI 유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8%와 -22%까지 투자가 줄어들었지만, 2011년에는 투자가 다시 31%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인도의 FDI 열기는 2011년도 FDI가 전년대비 21%나 급감함에 따라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에 인도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분야에 대한 개방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1년 11월 그동안 소상인이 많은 인도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였던 소매업의 멀티브랜드 유통업 부문에서 FDI를 51%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단일브랜드 소매업도 100%까지 FDI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보험업, 항공업, 군수업과 같이 인도정부가 국영기업 위주로 제한하던 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방적인 FDI 정책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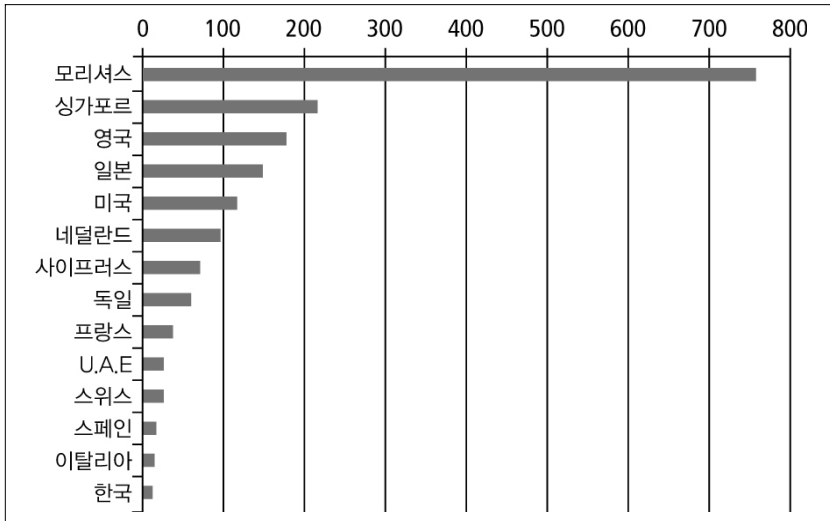
조가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 최근 인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고속도로, 국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FDI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나. 국가별 대인도 FDI

국가별 대인도 FDI는 누계 기준(2000년~2013년 7월) 모리셔스 757억 달러, 싱가포르 217억 달러, 영국 176억 달러, 일본 149억 달러, 미국 116억 달러의 순으로 각국은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모리셔스의 대인도 투자는 대부분이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미국, 영국계 자본의 우회 투자이다.

그림 2-14. 인도의 주요 FDI 투자국(2013년 7월까지 누적 기준)

(단위: 억 달러)



자료: SIA Newsletter(2013, 8), 웹사이트(2013, 10, 15).

한편 2000년 이후 새로운 투자 강국이 등장하면서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오히려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 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를 기록해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누적 기준으로는 13위로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주요 시기별로 대인도 FDI 투자 순위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표 2-6. 인도의 10대 FDI 투자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00~2005	2006	2012	2013. 7
1	모리셔스	7,285	4,629	10,238	4,520
2	싱가포르	575	594	3,175	3,340
3	영국	1,197	1,630	911	605
4	일본	1,182	109	2,159	966
5	미국	2,451	692	705	604
6	네덜란드	1,311	468	1,865	1,202
7	사이프러스	86	54	1,044	269
8	독일	644	291	809	1,001
9	프랑스	477	81	754	330
10	U,A,E	124	229	298	146
:					
13	한국	168	61	376	57

주: 순위는 누적 기준

자료: 상기 SIA Newsletter, 웹사이트(2013. 10. 15) 및 SIA Annual Report 2011.

19) 시기 구분은 인도정부가 국별로 구분된 FDI 유입액 통계를 발표한 2000년부터 시작하였다. 2005년과 2006년은 대인도 FDI 유입의 규모 및 분야 모두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므로 2006년을 두 번째 시기로 구분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로는 가장 최근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지형의 변화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2013년 7월로 구분하여 시기별 대인도 FDI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인도 투자 증가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0년에도 여전히 제1위 투자국은 우회투자를 중심으로 한 모리셔스로, 투자 규모가 7억 달러에 달한다. 다음으로 2위 투자국인 미국의 투자액은 약 4억 달러, 3위로 올라선 일본의 투자액은 약 2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 투자 순위는 이미 13위로 밀려났으며, 투자액은 1,450만 달러로 인도 유입투자액 중 0.6% 수준에 불과했다.

2000~05년 기간 중에는 여전히 미국이 모리셔스에 이은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네덜란드와 영국 등 전통적인 투자강국들이 3위와 4위에 올랐다. 특기할 점은 일본이 5위 안에, 싱가포르(7위)가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약 1억 7,000만 달러)의 순위는 12위로 2000년보다는 1단계 상승하였으나, 일본(약 12억 달러)과는 이미 투자액에서 7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2006년을 기점으로 인도의 FDI 유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06년 인도정부가 목표로 했던 FDI 100억 달러를 달성한(111억 달러) 이후 FDI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 2008년에는 300억 달러까지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별로는 2006년에도 모리셔스는 약 46억 달러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2위에 영국이 올라오면서 미국(2위 → 3위), 일본(3위 → 8위) 등이 뒤로 밀려났다. 그 밖에 20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투자순위가 낮았던 UAE가 일본을 제치고 7위(약 2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그동안 중위권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조세회피국인 사이프러스(13위, 약 5,000만 달러)도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²⁰⁾ 우리나라는 11위로 한 계단 상승하였다.

20) 이 시기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해외 인도인의 투자금액이 처음으로 278억 루피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투자 여력이 약해진 것이 2012년 대인도 FDI 유입국 순위에도 반영되었다. 2012년 모리셔스의 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로(총 투자유입액의 40.4%) 순위와 비중 면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서서히 비중을 높여나가던 싱가포르는 모리셔스에 이어 2위(약 32억 달러, 12.5%)의 투자국이 되었으며, 그 뒤를 일본(약 22억 달러, 8.5%)이 차지하였다. 사이프러스가 처음으로 5위 투자국으로 올랐다. 한편 전통적인 투자 강국이던 영국(약 10억 달러, 3.6%), 독일(약 8억 달러, 3.2%), 미국(약 7억 달러, 2.8%) 등의 순위가 뒤로 처지고 투자금액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하여 투자금액은 약 4억 달러로 1.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12위 투자국이 되었다.

2013년 7월까지의 대인도 FDI를 보면 다시 네덜란드(3위), 독일(4위), 프랑스(8위) 등 유럽의 비중이 커지고 미국은 7위로 순위를 한 단계 높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4위로 2013년 들어서는 투자순위가 더 낮아졌다.

인도의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인도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FDI가 흘러들어오고 있다. 여전히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대인도 FDI 투자국 중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이 대인도 FDI에서 주요국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존재감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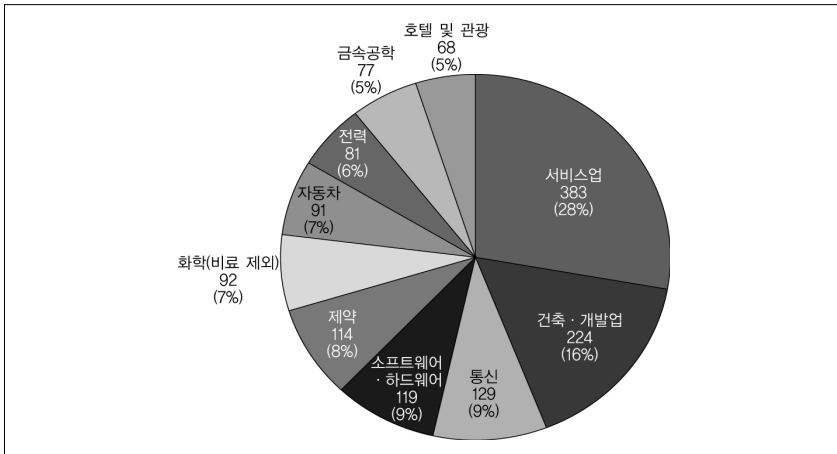
지 증가하고 순위도 5위로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다. 업종별 대인도 FDI

대인도 업종별 FDI를 누계 기준(2000년~2013년 7월)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업(금융 및 비금융 포함)과 건축·개발업, 통신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3개 업종이 대인도 FDI의 약 37%(상위 10대 품목 중에서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2006년 5~6배로 투자액이 급증한 이후 꾸준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까지는 투자순위 5위이던 통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치고 2008년 2위에 올랐으나, 2009년에 바로 건축·개발업에 의해 순위가 역전되었다. 2007년부터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던 건축·개발업은 2009년부터 줄곧 2위를 지키고 있다. 그 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19억 달러, 5.9%), 제약(114억 달러, 5.6%), 화학(92억 달러, 4.6%)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5. 인도로 유입되는 FDI 상위 10대 업종별 비중(누적 기준)

(단위: 억 달러)



주: 1) 2000년 4월~2013년 8월 누적 기준이다. 2) 상위 10대 업종은 인도 총 유입 FDI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상기 SIA Newsletter, 웹사이트(2013. 10. 15).

시기별로 FDI가 집중된 부문도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2000년에는 운송산업(약 2억 6,000만 달러, 12.1%)과 전기장비(약 2억 5,000만 달러, 11.9%)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 외 통신(약 1억 4,000만 달러, 6.8%), 화학(약 1억 1,000만 달러, 5.3%), 연료 등(약 1억 달러, 4.8%)이 FDI 유입 상위 5개 업종에 들었다.

2006년에는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입된 투자의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 19억 달러 투자로 10위(1.8%)에 그쳤던 서비스 일반이 약 37억 달러로 35.5%의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전기장비는 18.4%로 비중을 다소 높이며 2위를 차지했고, 통신은 8.6%로 3위를, 2000년 1위 산업이었던 운송은 3.6%, 화학도 3.6%로 1단계 낮은 5위에 올랐다.

서비스업은 2012년에도 약 53억 달러(31.2%)로 1위를 지켰다. 그 뒤를 2006년 10위로 부상했던 호텔 및 관광이 2012년에는 22.3%로 2위로 쟁쟁 뛰었다. 대표적인 서비스업 두 개 업종에만 절반이 넘는 외국인투자가

표 2-7. 인도의 10대 FDI 업종(순위는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업종	2000~2005	2006	2012	2013. 7	누적금액
1	서비스업	1,612	3,647	5,263	2,092	38,276
2	건축·개발업	366	763	2,650	713	22,439
3	통신	1,512	869	89	278	12,870
4	컴퓨터 HW&SW	2,547	1,823	716	342	11,930
5	제약	672	203	690	1,740	11,361
6	화학(비료제외)	671	374	371	569	9,246
7	자동차	1,352	245	1,246	1,571	9,089
8	전력	1,027	186	814	261	8,086
9	금속가공업	376	163	1,760	414	7,708
10	호텔 및 관광	212	170	3,770	263	6,754

자료: 상기 SIA Newsletter, 웹사이트(2013. 10. 15) 및 SIA Annual Report 2011.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금속가공업은 3위(10.4%)에 올랐고, 역시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한 무역과 산업기기가 각각 4.3%와 4.1%의 근소한 차이로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대인도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 유입되는 FDI는 최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는 건축·개발업 역시 빠른 속도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 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서만 70%가 넘는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1.6%)에서의 존재 또한 미미하다.

라. 주요 대인도 투자국별 비교

1) 개요

1952년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상 간 상호 방문과 협정체결 등을 통해 일찍부터 교류의 기반을 닦은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인도 투자를 시작하였다. 냉전시대 인도와 거리를 두었던 싱가포르는 1991년 인도의 시장개방과 동방정책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협력국가로 부상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인도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던 1996년 당시 일본은 4.1%, 싱가포르는 0.9% 투자국에 불과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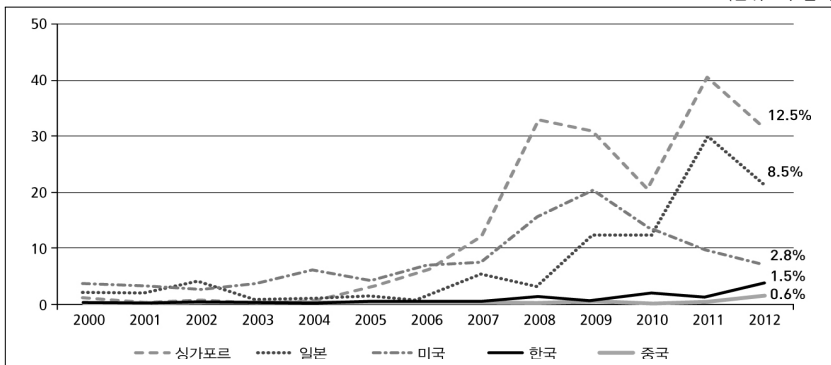
21) 조충제 외(2012, p. 35, p. 50~51, p. 234).

그러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주춤한 반면 1990년대 부진했던 일본과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는 동 기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인도와의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관계로 정의하고 정상 간 상호방문을 지속하여 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으로 2002년 투자 비중이 약 1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잠시 정체를 보였지만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8년부터 또다시 급증하여 2011년에는 11.3%까지 비중을 높였다. 2006년 일본이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으며, 최근에는 ODA 자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뛰어들면서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2005년 상·인도 CECA를 발효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선한 이후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 1.7%에 불과하던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2005년 7.3%로 높아진 데 이어 2012년 12.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2-16. 주요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억 달러)



주: 투자 비중은 2012년 투자액 기준이다.

자료: CEIC DB(2013, 10, 15).

인도에서는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에서 주요 투자국별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DIPP의 국별 투자데스크(Country Desk)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국별 대인도 투자 규모 및 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누적 기준으로도 대인도 2위 투자국이고 최근 가장 빠른 투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투자업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06년까지만 해도 인도로 유입되는 FDI의 약 5%를 차지하여 투자국 순위 6위에 그쳤으나, 200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대인도 투자 1위국(조세피난처인 모리셔스를 제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²²⁾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인도 FDI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2007~10년 동안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또한 위축되었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인도로 유입되는 총 FDI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00년 4월~2013년 8월 기준 싱가포르의 대인도 누적투자액은 180억 달러 이상이며, 이는 동 기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 규모의 약 16배에 해당한다.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는 인도로 유입되는 전체 투자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리셔스를 이은 2위이자 모리셔스를 제외한 신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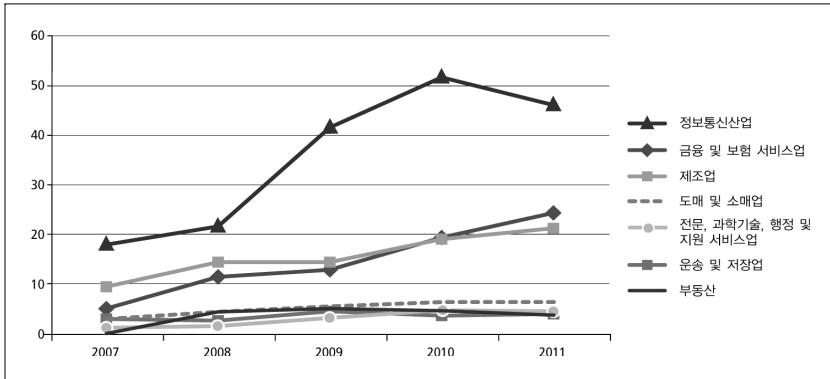
22)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한 데에는 2005년 이후 CECA와 이중과세방지조약 등 양국간의 다양한 투자협력 시스템, 최근 양국 정상 간의 경제협력 의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조충제 외 (2012)를 참조.

국으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2~12년 누적 기준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평균증가율은 114%로 나타나, 2001~12년 세계의 대인도 FDI 평균증가율인 39%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정보통신 단일 업종이 전체 대인도 FDI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제치고 2위 투자업종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는 정보통신산업이 39.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약 21%와 18%로 2위와 3위에 올라, 상기의 세 개 산업이 투자금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²³⁾

그림 2-17.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산업별 추이

(단위: 싱가포르 억 달러)



주: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 최대 투자분야인 건설은 통계 입수가 불가능하여 제외.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Singapore's Investment Abroad 2011), p. 24~28.

23) 실제로 싱가포르의 대인도 FDI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건설부문이며, 대부분 국영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이와 관련한 FDI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조충제 외 2012, p. 113).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2005년 발효된 인도·싱가포르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CECA)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CECA는 상품부문에 국한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과학 기술분야 협력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대표적으로 금융 부문에서의 혜택으로 2006년 이후 싱가포르 금융기업의 약진이 가능했다. 1994년 인도 뭍바이에 대표사무소를 개소한 싱가포르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이 CECA가 발효된 2005년에 두 번째 지점을 뉴델리에 열었고 2008년에는 UOB(United Overseas Bank), OCBC(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 3개 은행이 종합금융회사(Qualifying Full Bank)²⁴⁾로 인정받고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시작하였다.²⁵⁾ 이에 더하여 2005년 CECA 서명 당시 인도·싱가포르 간 1994년 기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조약도 개정되어 인도에 투자하는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이 늘어난 것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3) 일본

일본의 대인도 FDI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9%까지 상승했던 일본의 비중은 이후 계속 낮아져서 2006년에는 1%에 불과하였다. 2006년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등 일-인 양국 정부간의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거대시장 인도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진출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

24)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로서 자유로운 외화입출을 허용하는 대신 외국계 은행은 철저하게 규제한다.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은행은 종합금융(Qualifying full banking) 자격을 얻어야 종합금융을 하고, 싱가포르 내 지점(최대 25개)과 ATM을 설치할 수 있다.

25) 조충제 외(2012, p. 115).

하였다. 2008년 1.2%에서 2009년 4.7%로 4배 가까이 비중을 늘린 일본은 이듬해 6.1%, 2011년에는 11.3%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누적 기준으로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13년 7월까지 총 148억 달러가 이루어져 7.4%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본은 인도의 4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의 업종별 투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제약업의 투자 규모가 42억 달러, 29.3%로 가장 크다는 점이다. 제약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투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다. 초기 진출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투자는 최근 서비스 진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누적 기준으로도 16.2%로 비중이 축소되었다.

일본의 대인도 FDI에서 29%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업 투자는 대부분이 다이치산쿄(Daiichi Sankyo)가 인도 란박시(Ranbaxy)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란박시랩(Ranbaxy Laboratories Ltd.)에 의해 이루어졌다.²⁶⁾ 그 외 금융업 부문에 니폰 생명보험(Nippon Life Insurance)이

표 2-8. 일본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순위	산업	유입액(천만 루피)	유입액(백만 달러)	비중
1	제약업	20,620	4,230	29.3%
2	자동차	11,266	2,339	16.2%
3	서비스업*	10,386	2,078	14.4%
4	금속가공업	6,121	1,334	9.3%
5	전자기기	2,906	651	4.5%
합 계		51,300	10,632	73.7%

주: *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및 비금융업, 아웃소싱, R&D, 기술실험 및 분석 등 광범위한 지식서비스업을 통칭.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Japan(2013, 2, 28, 기준), DIPP.

26) 신약 개발에 경쟁력이 있는 다이치산쿄는 2008년 6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네릭 의약품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란박시 주식의 63.92%까지 매입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완성하였고(이웅 외 2012, p. 48), 이는 성공적인 상호보완형 제휴 사례로 꼽힌다(송송이 외 2013, p. 11).

표 2-9. 일본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순위	인도 현지기업명	모기업명	투자지역	품목	투자액 (백만 달러)
1	Ranbaxy Laboratories Ltd.	Daiichi Sankyo Co. Ltd.	미지정	제약용 화학품	1,401
2	Ranbaxy Laboratories Ltd.	Daiichi Sankyo Co. Ltd.	미지정	제약용 화학품	1,241
3	JSW Steel Ltd.	JFE Steel Corporation	뭄바이	반가공 철강제품	1,060
4	Ranbaxy Laboratories Ltd.	Daiichi Sankyo Co. Ltd.	미지정	제약용 화학품	722
5	Ranbaxy Laboratories Ltd.	Daiichi Sankyo Co. Ltd.	미지정	제약용 화학품	707
6	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Ltd.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미지정	생명·건강보험	543
7	Renault Nissan Automotive India Pvt. Ltd.	Nissan Motors Company	첸나이	운송기기 및 부품	275
8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td.	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미지정	금융자산 및 포트폴리오 관리	261
9	Anchor Electricals Pvt. Ltd.	Matsushita Electric Works Ltd.	미지정	전기제품	342
10	Kotak Mahindra Bank Ltd.	Mitsui Sumitomo Banking Corp.	뭄바이	금융서비스 등 은행업	303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Japan(2013, 2, 28, 기준), DIPP.

생명보험과 금융자산관리 분야에서,²⁷⁾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Mitsui Sumitomo)가 은행업 분야에서 3억~5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여 서비스업에서의 투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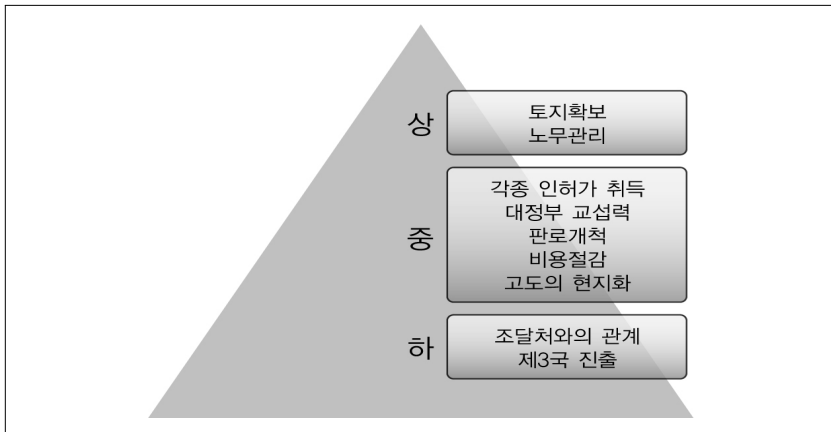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본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2008년부터 급증한 인도 현지기업과의 적극적인 합작 및 공동투자의 역할이 컸다. 2008년

27) 니폰 생명보험이 제휴한 릴라이언스 생명보험(Reliance Life Insurance)의 경우 일본이 CEPA를 체결한 2005년 인수하여 2008년 민간 생명보험업체 중에서 4위 기업으로 성장, 현재는 민간부문 생명보험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다(<http://www.reliancelife.com/about-us.aspx>).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에 대한 인도기업의 제휴 제안이 증가하면서, 일본기업의 대인도 제휴진출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JETRO가 2012년에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²⁸⁾ 일본기업이 인도기업과 제휴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미지의 시장에 대한 두려움 극복, 상대적으로 지연된 진출 시기 만회, 정착 속도 가속화, 자금과 인력 부담 축소, 고도의 현지화 달성, 외부자원 적극 활용, 루피화 하락에 따른 자금 부담 경감, 인도 내 재팬데스크 설치 증가에 따른 사업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기업은 인도기업과 제휴하여 현지에 진출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토지 확보와 노무관리를 꼽았다. 이밖에 일본기업들은 각종 인허가 취득의 용이성, 대정부 교섭력 강화, 현지시장 판로 개척, 현지화 실현 등을 인도기업과 제휴 시 장점으로 꼽았다(그림 2-18).

그림 2-18. 인도기업과 제휴진출 시의 장점(중요도별)



자료: 송승이 외(2013), p. 16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28) 송승이 외(2013)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 정리.

상술하였듯이 일본기업들의 합작투자는 순조로운 초기 진출 및 정착을 위한 목적도 있으나, 나아가 지역별 및 업종별로 세분화한 현지화 전략을 갖추기 위한 면도 있다. 이러한 제휴진출을 실시한 이후 일본은 진출 업종이 기존의 자동차, 전자기기에서 제약,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델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첸나이 등 남부인도 외에도 서부의 마하라쉬트라와 카르나타카, 동부의 웨스트벵갈 등까지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조충제 외 2012, p. 79).

우리나라 기업들도 2012년부터 합작투자 형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13년 6월 기준으로 35%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단순한 양적 팽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인도 진출 업종과 지역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합작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미국

인도 상공회의소의 주요국 투자데스크 중 미국에 관한 자료를 보면,²⁹⁾ 이 중에서 미국의 투자액은 116억 달러이고 미국은 인도 FDI에서 5.8%의 비중을 점하는 5위 투자국이다. 인도에 대한 미국의 투자분야는 서비스업이 23%로 가장 많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13%), 자동차(7%), 금속가공업(5%), 건설 및 개발(4%)의 순이다.

미국의 상위 10개 투자기업을 보면, 에사르 스틸(Essar Steel)과 포드자동차를 제외하면 모두 서비스업종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비즈니스서비

29) FDI Synopsis on Country U.S.A.(2013. 8. 31. 기준), DIPP.

스, 인프라 개발, 금융, 발전 등 인도에서 유망업종으로 손꼽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10. 미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순위	산업	유입액(천만 루피)	유입액(백만 달러)	비중
1	서비스업*	12,322	2,626	22.6%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6,698	1,484	12.8%
3	자동차	4,001	865	7.5%
4	금속가공업	2,269	527	4.5%
5	건설 및 개발*	2,104	463	4.0%
합 계		27,393	5,965	51.4%

주: 1)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및 비금융업, 아웃소싱, R&D, 기술실험 및 분석 등 광범위한 지식서비스업을 통칭.

2) 건설 및 개발은 주로 주택, 거주구역 개발을 비롯한 건축개발 프로젝트를 지칭.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U.S.A.(2013, 8, 31, 기준), DIPP.

표 2-11. 미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순위	인도 현지기업명	모기업명	투자지역	품목	투자액 (백만 달러)
1	Essar Steel Ltd.	Essar Steel Logistics Holdings, Ltd.	아메다바드	철강	452
2	Cairn India Ltd.	Petronas Intl' Corpn Ltd.	뭄바이	비즈니스 서비스	297
3	GMR Infrastructure Ltd.	26 Various FIIS	방갈루루	미분류	256
4	Cairn India Ltd.	Orient Global Tamarind Fund Pvt. Ltd.	뭄바이	비즈니스 서비스	233
5	Anant Raj Industries Ltd.	Deutsche Bank Trust, Co.	뉴델리	미분류	132
6	Ford India Ltd.	Ford Motor Company	첸나이	자동차	112
7	FEDEX Express Transportation	Federal Express Europe Inc.	뭄바이	창고 및 보관 서비스	105
8	E-Serve International Ltd.	CITI 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미지정	대여 및 구매	113
9	PTC India Ltd.	-	뉴델리	발전 및 송배전	103
10	Kotak Mahindra Bank Ltd.	Bank of New York	뭄바이	금융서비스 등 은행업	102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U.S.A.(2013, 8, 31, 기준), DIPP.

5) 중국

중국의 대인도 FDI는 2000년 이후 총 2억 4,476만 달러로 전체 유입 FDI의 0.13%를 차지하며 순위가 31위로 상승하였다. 2004년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한 중국의 FDI는 2008년에 전년대비 6배 증가(671만 달러) 하고, 2009년에는 7배 증가(4,136만 달러)하였다. 2010년에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1년 7,269만 달러의 투자에 이어 2012년에는 총 누적 투자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1,831만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진출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에 투자의 4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금속가공업의 비중도 17.2%로 매우 높다. 그 뒤를 잇는 전력(6.9%), 인프라 건설(4.4%), 서비스업(4.2%)까지 상위 5개 진출분야가 중국의 대인도 투자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상위 25개 기업의 투자액이 2억 2,260만 달러로 중국의 대인도 투자액 중 91%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Foton Motors와 2위인 VISA BAO Ltd가 총 투자의 52%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그 외에 도로, 철도와 같은 인프라 개발과 발전 및 송배전 등 전력분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표 2-12. 중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순위	산업	유입액(천만 루피)	유입액(백만 달러)	비중
1	자동차	524	99	40.4%
2	금속가공업	204	42	17.2%
3	전력	88	17	6.9%
4	건설(인프라)	48	11	4.4%
5	서비스업*	52	10	4.2%
합 계		916	179	73.0%

주: * 서비스업은 금융, 은행, 보험 및 비금융업, 아웃소싱, R&D, 기술실험 및 분석 등 광범위한 지식서비스업을 통칭.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China(2013, 2, 28, 기준), DIPP.

표 2-13. 중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순위	인도 현지기업명	모기업명	투자지역	품목	투자액 (백만 달러)
1	Foton Motors Mfg. India Pvt. Ltd.	Beiqi Foton Motors Co. Ltd.	뭄바이	화물 및 특수차량 제작	93.86
2	VISA BAO LTD.	Boa Steel Resources Co. Ltd.	부바네스바르	철합금 제조	32.80
3	ZTE Kangun Telecom Company (I) Ltd.	ZTE Corporation	뉴델리	수리 등	12.60
4	Essel Ahmedabad Godhra Toll Roads Ltd.	Chian Rail way 18th Bureau Corporation Ltd.	뭄바이	도로, 철도, 다리, 파이프라인 등의 건설 및 유지	10.70
5	Shanghai Electric India Pvt. Ltd.	Shanghai Electric Group Ltd.	뉴델리	기타 서비스	8.57
6	TBEA Energy (India) LTd.	TBEA Shenyang Transformer Group Co. Ltd.	뉴델리	발전 및 송배전	8.52
7	TBEA Energy (India) LTd.	TBEA Shenyang Transformer Group Co. Ltd.	뉴델리	발전 및 송배전	8.26
8	Chenguang Bio-Tech (India) Pvt. LTd.	Chenguang Bio-Tech Group Co. Ltd.	하이데라바드	휘발유 및 합성수지 제조	4.68
9	Ecolutions Green Energy (india) Pvt. Ltd.	Ecolutions New Energy Investment (Asia)	뭄바이	풍력발전	4.80
10	YAPP India Automotive Systems Pvt. Ltd.	YAPP Automotive Parts Co. Ltd.	미지정	자동차부품 및 연료탱크 제조	3.65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China(2013. 2, 28 기준), DIPP.

6) 한국

인도정부에서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총 12억 7,000만 달러이며 누적 기준으로 13위의 투자국이다. 인도에 유입된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3%이다.

표 2-14. 한국의 대인도 투자진출 상위 5개 산업

순위	산업	유입액(천만 루피)	유입액(백만 달러)	비중
1	금속가공업	1,671	333	26.2%
2	원동기(Prime Mover)	571	125	9.9%
3	전동공구	483	100	7.9%
4	자동차	404	86	6.8%
5	전자제품	337	72	5.7%
합 계		3,465.23	716	56.5%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Korea(2013. 8. 31. 기준), DIPP.

인도 상공부의 업종 구분에 따른 FDI 데이터에서도 우리나라의 상위 5개 진출산업은 모두 제조업이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금속 가공에 관련된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진출기업으로는 포스코(POSCO)가 지난 2005년 오리사 주(州)에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 규모의 일관제철소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광권, 부지 수용과 관련한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포스코(POSCO)는 몸바이 등에 철강센터를 두고 자동차 및 가전용 고급 철강관 및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인도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비스(MOBIS)는 현대자동차와 동반진출하여 차량에 장착되는 피스톤 내연기관을 주로 제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 Ltd.)은 다양한 전자제품의 생산하고 있다. 비제조업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대 투자기업에 오른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GT. I.P.L)는 2006년에 자본금 2,800만 달러로 당시 인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였다.

표 2-15. 한국의 대인도 10대 투자사업

순위	인도 현지기업명	모기업명	투자지역	품목	투자액 (백만 달러)
1	POSCO Maharashtra Steels Pvt, Ltd.	POSCO	뭄바이	기계부품 제작	80
2	POSCO Maharashtra Steels Pvt, Ltd.	POSCO	뭄바이	원료 및 반가공 철강제품 제조	46
3	POSCO Maharashtra Steels Pvt, Ltd.	POSCO	뭄바이	철합금 제조	53
4	POSCO India Pvt, Ltd.	POSCO	부바네스바르	기타 제조업	49
5	POSCO India Pvt, Ltd.	Tae Hyun Jeongl & POSCO	부바네스바르	반가공 철강제품 제조	50
6	POSCO India Pvt, Ltd.	POSCO	부바네스바르	1차가공 철강제품 제조	41
7	POSCO Maharashtra Steels Pvt, Ltd	POSCO	뭄바이	1차가공 철강제품 제조	36
8	MOBIS (I) Ltd.	Hyundai MOBIS Co, Ltd.	첸나이	피스톤 내연기관 및 부품 제조	35
9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GT. I,P,L	MIRAE Asset Investment MGT. Co, Ltd.	뭄바이	부동산업	28
10	Samsung India Electronics Ltd.	Samsung Electronics Co. Ltd.	미지정	미지정	24

자료: FDI Synopsis on Country: Korea(2013, 8, 31. 기준), DIPP.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진출 형태와 업종 등의 측면에서 주요 대인도 투자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실시되면서 주로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와 금속가공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제약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투자도 금융서비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특정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다보니 진출 지역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제조업은 첸나이(자동차), 그 밖에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 소매업은 뉴델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편중 현상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인도는 2013년 6월 현재 투자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1.3%)이고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 해도 5위 투자국이었으나, 2000년 들어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아지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2000년 이후 인도의 서비스업 및 인프라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운송장비 정도에 머물고 있다.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가 CECA 조항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

1990년대 우리나라는 대인도 투자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대인도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1993년 인도의 라오 총리가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하고 이후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인도를 답방하면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당시 대인도 직접투자의 약 9%가 한국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약 13%까지 높아져 한국은 모리셔스, 미국, 영국 등에 이어 5위의 투자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둔화된다. 1990년대 후반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신규 투자가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인도의 FDI 유입액 중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 1.5%를 넘어선 것 외에 모두 1% 이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대인도 투자를 시작하였지만, 스즈키를 비롯한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고 진출 기업 대부분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1996년에만 해도 일본과 싱가포르의 투자 비중은 각각 4.1%와 0.9%에 불과하였다.³⁰⁾ 그러나 1990년대 부진했던 일본과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 비중을 11%로 끌어올린 이후 2011년 11.3%까지 높였다. 2004년까지 1.7%에 불과하던 싱가포르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2005년 7.3%로 높아진 데 이어 2013년 6월에는 23%까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약 180억 루피에 그친 반면, 일본은 약 1,036억 루피, 싱가포르는 약 1,524억 루피까지 신규 투자를 하였다. 인도정부가 국가별 FDI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 2000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국가별 누적 투자금액은 싱가포르 217억 달러, 일본 14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13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가별 투자 순위에서도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13위(0.6%)에 머물렀다.³¹⁾

30) 조충제 외(2012), p. 243.

나.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투자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에서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대 전무하던 대기업의 인도 진출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1992년의 대기업 투자점유율 87%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대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대인도 투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7%이고 중소기업은 18.0%에 불과하다. 1990년대 한때 100%에 가깝던 대기업의 독주는 2000년대 들어와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신규 진출 기업의 74%는 여전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편중 현상이 강하지 않다. 2013년 6월 기준 대중국 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7%이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대인도 FDI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분야의 FDI는 24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84.8%에 달하고 있다.³²⁾ 진출 기업 수도 373개로 전체 623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문은 제조업 중에서도 전통적인 해외투자 주력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 제조업(24.9%)에서만 70%가 넘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1위 해외투자 품목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5.4%) 제조업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31) 앞절과 달리 인도정부가 발표하는 FDI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금액이 13억 달러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순위도 13위가 아닌 14위로 떨어진다.

3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서 제조업 편중 현상은 보편적인 것으로 대중국 투자에서도 제조업 비중은 77%가 넘는다.

제조업 외 서비스업 투자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가스·수도사업(1.7%), 금융 및 보험업(1.6%), 건설업(1.4%)까지 상위 5개 업종 투자가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진출 서비스업의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인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 확보할 수 있는 자원개발 또는 인프라개발 투자 진출은 매우 적다.

다. 단독 및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단독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20% 가까이 이루어지던 공동투자 규모는 0.4%로 줄어드는 한편 2013년 6월 기준 합작투자 비중은 35%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단독투자가 많은 것은 일본 및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대인도 투자 강국과는 대별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M&A를 활용한 합작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다. 제약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다이치산쿄를 비롯하여 릴라이언스 생명을 인수하여 민간부문 생명보험시장에서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니폰 생명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비교적 초기에 인도시장에 진출한 스텝키사는 인도 자동차 산업에 합작투자로 자동차 시장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현지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대부분인 반면, 저임의 노동력 활용이 진출 목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KIEP 보고서(2011)에 따르면 먼저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 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

출이었고, 실제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대부분 내수에서 발생하였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도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한편 2013년에는 수출 촉진 동기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45%를 차지하여, 인도를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양호한 경영 실적

인도의 기업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실적은 매우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인도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지의 현지법인보다도 매출 총 이익률, 영업이익률 등을 모두 고려한 경영성과에서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³³⁾ 투자수익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투자수익률은 77.8%로 중국의 30.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부채비율도 비교국가군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유동비율은 125.8%로 높아 재무건전성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의 경영 실적도 꾸준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1.8%를 기록한 투자수익률은 2008년 28.1%, 2009년 56.2%로 다소 낮아졌지만, 2010년 다시 92.8%로 높아졌으며, 동년의 우리나라 대세계 투자수익률인 22.4%와 비교해보면 인도에서의 경영성과가 매우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3) 김병순(2008), p. 272에서 재인용

인도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 규모는 2010년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KIEP가 2011년에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비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도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나면서 본국 뿐만 아니라 제3국 수출의 기지기도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모형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대인도 투자 국가들의 투자 규모나 건수 등을 시계열 혹은 패널 데이터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의 특징이 반영되지만 결국은 일반화된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국가별 대인도 투자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 1991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대인도 FDI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해왔지만 작성 기준이나 방법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현재 안정된 국가별 시계열 FDI 데이터는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회귀분석 등을

시도하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가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³⁴⁾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양국간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방법과 반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포함시키지 않아 일반적인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는 없는 대신 양국 간의 특수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한국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인도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투자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는 여러 모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수의 투자 결정요인 변수를 포함시킨 다중선형회귀(multi linear regression model)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³⁵⁾ 문제는 투자 결정요인이 워낙 다양한 것에 비해 관측 가능한 결정요인 변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동시성(potential simultaneity)과 설명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³⁶⁾

34) 대인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현황은 1장 3절에서 다루었다.

35)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결정요인 분석 연구들의 대부분은 다중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36) 김상욱(2011), pp. 118~119.

표 3-1.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

연구자	주요 투자 결정요인	투자 방향
魏后凯(2000)	Production cost, Market size, Agglomeration, Tax, Geographical and Cultural Linkage	Europe → China U.S. → China Japan → China Korea → China
Chang-Soo, Lee, Chang-Kyu, Lee (2002)	Lipsey's gravity equation: Market size, Growth rate, Per capita income, Distance, Tax policy,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Market size, Openness, Infrastructure, Internal reform, Human capital	Korea → China World → China
Fung, K. C., Iizaka, H.(2002)	Market size, Labor Cost, Labor quality, Infrastructure, dummy variable for Special Economic Zones and Open Coastal Cities, dummy variable for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U.S. → China Japan → China H.K. → China Taiwan → China
崔栢烈(2002)	Korea's GDP, Korea's Total Export, Export to China, Capital cost, Wage, Exchange rate	Korea → China
지만수(2002)	Market size, Labor Cost, Labor quality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Number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Total FDI	Korea → China
Fung, K. C., Iizaka, H., Siu, A.(2003)	Market size, Labor Cost, Labor quality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Number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Open Coastal Cities, Number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s, Distance from capital to Japan	Japan → China H.K. → China
이홍식, 김혁황 (2004)	Factor proportions FDI; Market access FDI Market size, Labor Cost, Labor quality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Policy, Degree of reform	Korea → China

자료: 김상욱(2011), pp. 120~122, [표 3]에서 대중국 FDI 결정요인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

본 연구에서도 다중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된 변수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투자 결정요인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3-1]은 대중국 FDI 결정요인 연구에 사용된 주요 결정요인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 특히 중력모형(gravity model)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변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 특징 중 관측 가능한 변수들을(χ_t)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모형을 구축하였다.

$$FDI_t = f(\chi_t, \mu_t)$$

(χ_t : 관측가능 변수, μ_t : 관측불가 변수, t : 시기)

$$\ln(FDI_t) = \alpha_1 + \beta_1 \ln(FDI_{t-1}) + \beta_2 GDP_t + \beta_3 GDPGAP_t + \beta_4 EXPORT_t + \beta_5 BIG_t + \beta_6 MANU_t + \mu_t$$

우선 종속변수 $\ln(FDI_t)$ 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금액으로 로그 전환하였다. 대인도 투자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그 전환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한계, 변수 추가에 따른 자유도 감소 등을 고려하려 독립변수는 앞서 살펴본 대인도 투자 특징을 반영하되 다음과 같이 최소화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 $\ln(FDI_{t-1})$ 는 전년도 투자금액을 로그 전환한 것이다. 일반적인 FDI 속성상 FDI는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1년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정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 후 전후방 연관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대인도 투자도 만약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 그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37)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우려되는 것이 잔차항의 계열상관 가능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이후 Breusch-Godfrey Serial Correlation LM Test를 실시한 결과 계열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인도 GDP성장률(GDP_t)이다. 이는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인도의 경제 규모가 변화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입된 변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물론 여러 연구에서도 투자 대상국의 경제(시장) 규모는 투자에 긍정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추정계수도 정(+)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특징 중 하나가 현지시장 진출 동기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변수의 추정계수는 정(+)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독립변수인 $GDPGAP_t$ 는 양국의 소득 격차, 즉 1인당 GDP 격차 증가율이다. 이는 일종의 생산요소, 특히 양국의 임금 격차를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양국의 임금 수준은 양국의 1인당 소득 수준과 비슷한 추세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변수의 추정계수는 일반적으로 정(+)의 값을 갖겠지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동기 중 저임 활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독립변수 $EXPORT_t$ 는 대인도 수출증가율이다. 이는 대인도 투자와 대인도 수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만약 추정계수가 정(+)의 값을 가진다면 대인도 투자와 대인도 수출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인도 투자진출 초기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업종의 대기업이 진출하여 대인도 부품 수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추정계수는 정(+)의 값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진출이 상

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추정계수가 꼭 정(+)의 값으로 추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섯 번째 독립변수 BIG_t 는 투자기업의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투자기업의 규모 즉,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투자하여 설립되는 신규 법인 건수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 특징 중 하나가 투자금액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상반기 말 기준 전체 누적 투자액의 80% 이상이 대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만약 이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의 값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인도 투자 건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 변수인 $MANU_t$ 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신규 법인 건수에 있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제조업, 비제조업 등 투자 업종의 차이가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시킨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의 값을 가진다면 투자업종, 즉 제조업 신규 법인 건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특징 중의 하나인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영 실적은 대인도 투자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출지역 편중이 지나치게 높은 특징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룰 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데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나. 자료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료의 확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국내외에서 대중국 FDI 결정요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매우 많다. 이렇게 다양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대중국 투자 규모나 건수 자체가 워낙 크고 많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유입되는 FDI 통계자료를 매우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도의 경우 국가별 FDI의 연간 시계열 자료도 2005년 이후부터나 입수가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일관된 월간 국가별 FDI 자료가 2004년 하반기부터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부터 FDI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여 왔다. 하지만 그 후 여러 번 그 추계 방법 등을 변경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행히 최소한의 분석이 가능한 25년간의 시계열 자료, 즉 198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 대인도 투자 규모 및 신고 건수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부족한 시계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업종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였다. 투자 규모나 건수가 아직 많지 않아 연간 투자 실적이 없는 업종이 많았다. 또한 업종별로 분류된 다른 변수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대인도 투자 규모, 대인도 투자 신규법인 건수 중 대기업 비중 및 제조업 비중은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한 통계자료를 활용,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인도 GDP 실질성장률, 인도와 한국의 1인당 GDP 격차 증가율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³⁸⁾ 활용, 원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인도 GDP 규모, 양국간 1인당 GDP 격차 규모, 혹은 이들을 로그 전환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y)이 확보되지 않아 각각의 성장률과 증가율을 사용하였다.³⁹⁾

한국의 대인도 수출도 시계열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 규모 혹은 로그 전환한 수출 규모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데이터베이스를⁴⁰⁾ 통해 확보하였다. [표 3-2]는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과 각 변수의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unit root test) 검정 결과이다.

각 변수의 평균을 보면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연평균 대략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인도는 평균 6.7%의 실질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같은 기간 양국간 1인당 GDP 격차는 매년 9%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 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8)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3/02/weodata/weoselgr.aspx>(검색일: 2013. 11. 27).

39) 일반적으로 규모(level) 변수는 변수의 특성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변수이지만 특정한 추세(trend)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성적(spurious) 회귀의 가능성이 높아 단위근(unit root test) 검정 등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된 변수를 주로 사용한다.

40)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1(검색일: 2013. 11. 27).

표 3-2.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단위근 검정 결과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관측 치수	단위근 검정 (p값)
ln(FDI) (대인도 FDI규모)	10.21	13.02	3.21	2.39	25	0.021
GDP (인도 실질성장률)	6.70	9.90	1.40	2.10	25	0.019
GDPGAP (한국과 인도의 1인당 GDP 격차 증가율)	9.10	36.07	-34.59	14.96	25	0.002
EXPORT (대인도 수출증가율)	24.08	311.60	-35.70	66.71	25	0.001
BIG (대인도 투자 신규법인 건수 중 대기업 비중)	29.99	100.00	0.00	24.39	25	0.001
MANU (대인도 투자 신규법인 건수 중 제조업 비중)	72.40	100.00	39.62	20.55	25	0.041

자료: 저자 작성.

양국간 1인당 GDP 격차 증가율의 최소값이 부(-)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급감하여 그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대인도 교역증가율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24% 이상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신규법인 건수 중 대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평균 약 30%로 나타났으며, 최소값 및 최대값이 각각 0% 혹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10개 신규법인이 설립된다면 이중 약 3개는 대기업이 설립한 신규법인이지만 어떤 해에는 신규법인 모두가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만 설립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3년 이전에는 대기업이 설립한 신규법인이 거의 없었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대기업의 신규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가 다시 최근

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5년간 대인도 투자 신규법인 건수 중 제조업 비중은 평균 7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신규법인이 제조업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각 변수의 25개년 시계열 자료를 단위근 검정해 본 결과, 모든 시계열 자료들이 안정적인 시계열로 추정되어 비정상적 시계열 자료로 추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성회귀(spurious)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상기 모형에 각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를 대입하여 최소자승법(Least Square)으로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변수는 25개의 시계열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전년도 대인도 투자 금액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ln FDI_{t-1}$) 추정 결과에 포함된 각 변수의 관측치는 24개로 줄어들었다.

우선 이번 회귀분석은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통계량이 충분히 크게 나타나 p값이 거의 0을 나타내고 있고, R^2 도 78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포함시켜 회귀분석해보니 F통계량과 R^2 가 지속 높아졌다. 즉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본 회귀분석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인도 FDI 규모($\ln FDI$),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한국과 인도 양국의 1인당 GDP 격차 증가율(GDPGAP),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EXPORT) 변수의 계수는 각각 최소 10% 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3-3. 한국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t 값	p 값
C(상수항)	5,693 *	2,917	1,951	0,067
ln(FDI _{t-1})	0,432 **	0,190	2,264	0,036
GDP _t	0,238 *	0,125	1,902	0,072
GDPGAP _t	-0,041 **	0,018	-2,228	0,039
EXPORT _t	-0,007 **	0,003	-2,090	0,051
BIG _t	-0,005	0,011	-0,497	0,625
MANU _t	-0,006	0,019	-0,314	0,757
R-square				0,780
Adjusted R-square				0,702
F-statistics				10,051
Prob.(F-statistics)				0,000
D,W. statistics				2,337
Observations				24

주: ***, **, *은 각각 1%, 5%, 10%의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대인도 투자 신규법인 건수 중 대기업 비중(BIG)이나 제조업 비중(MANU)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일부는 그 계수 값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전년도 대인도 FDI 규모(lnFDI), 인도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변수의 계수는 당초 모형 설정 시 예상대로 정(+)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양국의 1인당 GDP 격차 증가율(GDPGAP),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증가율(EXPORT) 변수의 계수는 부(-)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은 많지만 본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만을 고려할

때, 전년도 대인도 FDI 규모,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5년간 대인도 투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 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 성격이 대부분 시장 진출 추구형(market seeking)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앞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서는 물론 KIEP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⁴¹⁾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의 투자 동기는 현지시장 진출이었다. 상기 두 변수의 추정 결과는 중국 등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비슷하다. 다만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최근처럼 인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때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저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의 값을 갖는 경우가 양국간 1인당 GDP 격차와 대인도 수출인데, 이것은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대인도 수출의 경우 대인도 투자와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⁴²⁾ 이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양국 산업이 생산 분업 체제

41) 조충제 외 3인(2011. p. 61, p. 143)에 따르면 현지 내수시장 진출 동기가 인도 진출 101개 제조 기업 중 73.3%, 비제조 기업 66개 중에서는 83.3%를 차지하고 있었다.

42) 좀 더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비용의 차이 등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지만 수집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25년에 불과하여 독립변수를 추가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였다.

에 잘 편입되어 있다면 대인도 수출과 대인도 투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인도 투자로 한국에 있는 모기업과 인도에 있는 생산법인 간의 기업 간 거래 증가로 대인도 투자와 대인도 수출이 정(+)의 관계로 추정될 수도 있었겠지만 부(-)의 관계로 추정된 것은 양국 산업 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대인도 수출 증가가 대인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로 매년 양국 관세가 낮아지고 있다. 수출을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어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경우 대인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다행한 점은 그 계수 값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인도 수출 증가율이 1단위 증가할 경우 대인도 투자 증가율은 0.007 단위로 매우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양국간 1인당 GDP 격차가 대인도 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인도가 고성장하였지만 인구가 워낙 많고 환율 등의 영향으로 1인당 GDP 증가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지 않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양국간 생산요소의 가격 격차가 지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⁴³⁾ 대인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양국간 생산요소의 격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FDI를 유발시킨다. 그 관계가 아예 유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동기에서 나타났듯이 인도의 경우 전형적인 개도국임도 불구하고 낮은

43) [표 3-2]의 각 변수 기초통계량을 보면 연간 평균 그 격차 증가율이 9% 이상이다.

임금을 활용하려는 투자 동기가 매우 적고 최근일수록 이런 동기가 더욱 약해지고 있어⁴⁴⁾ 이와 같은 추정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실제로 대인도 투자 증가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불 명확하게 추정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인도 수교 이후 대인도 투자를 주도해온 것은 대기업과 제조업이었다. 최근에 들어 그 정도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누적금액 기준으로 각각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인도 투자가 탄력을 잃어가는 것도 대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탓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해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 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4) 조충제 외 3인(2011, pp. 60~61)에 따르면 인건비, 지가 등 생산요소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 동기가 인도 진출 101개 제조 기업 중 2.0%, 비제조 기업 66개 중에서는 1.5%로 매우 미미하였다.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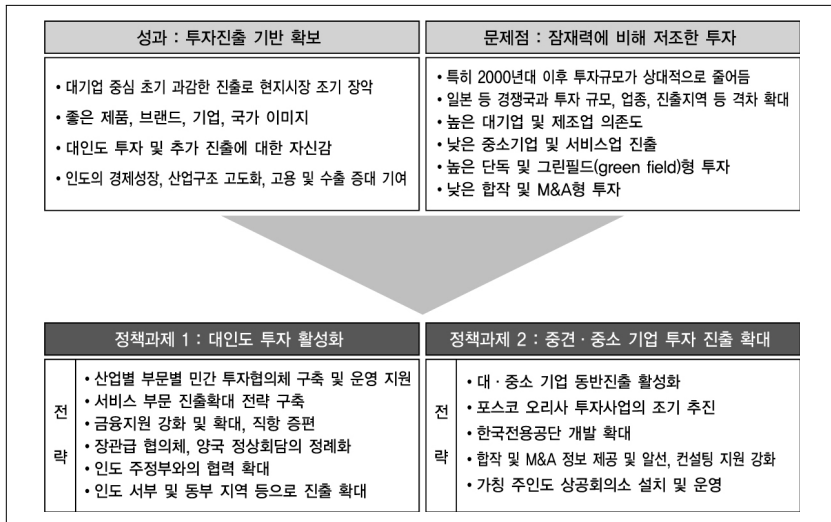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지금까지 본 연구는 먼저 1973년 한국과 인도 양국이 공식 수교를 체결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FDI 측면에서 대인도 투자 추이를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았으며,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 실태와 함께 인도로 유입되는 국가별 FDI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FDI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그림 4-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1.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과제



자료: 저자 작성.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가. 대인도 투자 성과

지난 40년간, 실제로는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약 25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최대 성과는 중국 다음가는 거대 신흥시장인 인도에 투자 진출하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 점이다.

지금도 인도의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세계은행의 2013년 국가별 사업 환경 지수에서 인도는 132위를 기록하고 있다.⁴⁵⁾ 사실상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투자 환경을 갖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인도의 투자 환경은 더욱 낙후되어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인도 투자를 시작했다. 인도와 오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선진국 기업들은 물론 1980년대부터 진입한 일본기업조차 대인도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이를 통해 단기에 현지시장을 확보했다. 이러한 과감한 선제 투자는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진출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나아가 인도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⁴⁶⁾ 또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최대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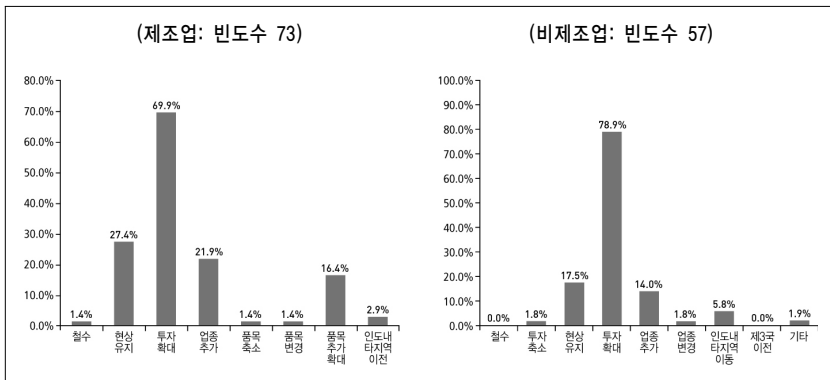
45)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English/DB13-full-report.pdf>, 검색일: 2013. 11. 27) 참고.

46) 조충제 외 3인(2011, p. 9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 한국인 순으로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었으며 한국 대중문화, 한국 전통문화 등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도의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실제로 조총제 외 3인(2011)에 따르면 [그림 4-2] 인도 현지 진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약 70%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향 중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투자 확대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 기업도 마찬가지로 약 80%의 비제조 기업이 투자 확대를 향후 사업 운영 방향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선택했다. 이러한 대인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자신감은 현지 경영 및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의 경제성장 및 고용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 증대 등에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큰 역할을 한 점 또한 높게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인도 가전 및 승용차 산업을 견인하고 제품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인도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인도의 자동차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향후 3년간 현지사업 운영 방향



자료: 조총제 외 3인(2011), p. 125, p. 178.

나. 대인도 투자의 문제점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아직 많다. 가장 큰 문제가 인도의 시장규모 및 성장 잠재력과 우리 기업의 투자 잠재력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너무 작은 점이다. 2013년 8월 말 기준 인도의 누적 FDI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2013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FDI 중 대인도 FDI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3%에 불과하다. 물론 인도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진출에 애로가 많지만 인도는 구매력 기준 GDP 규모로는 이미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 3위 국가이다.⁴⁷⁾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인도 투자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이후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급증하여 인도 진출 일본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매우 높은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⁴⁸⁾ 인도에서 FDI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현지 진출 기업 수는 물론 진출 지역, 진출 업종 등에서도 일본에 밀리고 있다. 최근 인도 가전 및 승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기업들마저 본격적으로 가세한다면 우리 진출 기업들의 위상은 더욱 빨리 약화될 가능

47) IMF에 따르면 2012년 인도의 구매력 기준 GDP는 4조 7,156억 달러, 명목 GDP는 1조 8,417억 달러이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3).

48) 맥킨지는 지난 2007년에 세계 12위인 인도 소비시장이 2025년에는 세계 5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McKinsey 2007, *The Bird of Gold: The Rise of India's Consumer Market* 참고).

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투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인도 투자 초기인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대기업의 과감한 인도 진출은 중소기업의 리스크 축소와 함께 이들의 대인도 진출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증가세의 둔화는 대기업의 투자진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기업 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대기업에 지나치게 높게 의존해 있는 현재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갖는 문제점과 비슷한 맥락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가 제조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중소 제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제조 대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중소 제조업 진출도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의 진출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서비스업 진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우리의 서비스업 진출이 늦어지면 질수록 후발주자로서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투자가 특정 지역, 즉 델리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NCR)와 첸나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당장은 우리 진출 기업들이 소위 집적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진출 거점을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진출 지역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져야 한다. 특히 인도 서부 및 동부 지역 진출을 서둘러

야 한다. 인도의 고성장 지역인 서부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일본기업에 비해 매우 적다.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도 동부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아예 없다. 반면 일본은 동부지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투자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인도 진입 방법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단독 투자이며 아직도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투자가 빠른 속도가 늘고 있는 데는 일본기업이 단독투자만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합작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인프라가 갖추어진 부지 확보는 현지 기업들조차 매우 어렵는데 우리 기업들처럼 그린필드(green field)형 단독투자만을 고집할 경우 투자 자체가 어렵다. 인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M&A 등을 통한 인도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및 전략

가. 대인도 투자의 활성화

대인도 투자의 정책과제는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성과를 더욱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대인도 투자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향후 대인도 투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이다.

먼저 산업별·부문별 민간 투자진출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산

업별·부문별 투자 협의체는 가급적 세분화하여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은 부문부터 우선 설치, 운영한 다음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시적, 간헐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인도의 사업 환경이 너무 열악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에는 민간 산업 및 기업 단체가 주도하겠지만 특히 초기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주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정부가 투자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부문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필요로 하는 시장 정보나 현지 네트워크 알선, 현장 조사 등을 정부 및 유관기관이 지원하여 대인도 투자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인프라 및 건설 부문 이외 제조업 부문에는 보다 다양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되 이미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가전이나 자동차 부문 외에 식품, 섬유, 기계, 전자재 등 보다 다양한 부문의 세분화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특별히 취약한⁴⁹⁾ 서비스 부문 진출 촉진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투자 협의체 중 서비스 부문의 세분화된 투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IT, BT, 금융, 도소매, 호텔, 의료, 영화, 환경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

49) 일본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 BT, R&D, 통신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인도 상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Japan Desk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14%이다(http://dipp.nic.in/English/Investor/Japan_Desk/FDI_Synopsis_Japan_28February2013.pdf, 검색일: 2013. 8. 31).

투자진출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현장 조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서비스 부문 투자자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

대인도 투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는 부문이 금융지원이다.⁵⁰⁾ 이런 측면에서 2012년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에서 인도 인프라 부문 개발 참여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양국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10억 달러 규모를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도 직항편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 현재 인천-델리, 인천-뭄바이 직항이 1주일에 각각 3편에 불과하다. 델리, 뭄바이를 제외한 첸나이, 콜카타, 방갈로르 등 인도의 주요 도시를 향하는 직항은 아예 없어 대단히 불편하다. 대인도 투자,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우선 편리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민간 차원의 투자진출 협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소 장관급 협의체 정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할 것이다.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양국 관련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회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 간 편제는 물론 소관 업무가 달라 단독 장관급회의가 비효율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과

50) 조충제 외 3인(2011, p. 253)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기업의 약 48%, 비제조 기업의 약 49%가 금융지원을 최우선 지원요청 분야로 선택하였다.

학기술, 사회문화 등 주요 협력부문별 합동 장관급 회의가 추진된다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간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합동 장관급회의와 정상회의 정례화는 양국간 투자는 물론 경제협력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5년 이후 인도와 정상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인도 투자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인도 중앙정부는 물론 주정부와의 협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인도 주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 거의 없다. 반면 일본은 인도의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카르나타카 등과 일본 전용공단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잘 활용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도 주요 주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이 부진한 인도 서부지역, 동부지역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중견·중소 기업 투자진출 확대

대인도 투자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인도 진출 신규법인 중 대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앞서 투자 결정요인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기업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도 진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인도 현대자동차는 진출계획 단계부터 동반진출을 시도하여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대기업의 선진출, 협력기업의 후진출로 역시 성공한 사례이다. 이러한 동반진출 후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별·부문별 민간 협의체에서도 동반진출을 현실화하는 논의를 적극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의 오리사 프로젝트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포스코 일관제철소 투자사업만큼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없을 것이다. 특히 오리사는 풍부한 지하자원 및 인력자원으로 최근 성장 및 FDI 잠재력이 높은 주로 부상하고 있다.⁵¹⁾ 오리사는 아직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전무한 곳이지만 우리 기업의 인도 동부지역 진출 전초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전용공단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일본, 싱가포르는 자국 기업의 진출을 위해 인도 내 전용공단 개발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프라가 갖추진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자국 진출기업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⁵²⁾ 인도에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면 전용공단 설치

51) 조충제 외 2인(2011)의 2010~26년 인도 주별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오리사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타밀나두, 하리아나와 함께 고성장 주로 분류됨. 또한 최근 인도 현지 언론은 오리사는 2012/13년 기준 인도 주별 FDI 실적에서 마하라슈트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고 보도하였다(The Times of India, 2013년 9월 12일자, Odisha top investment destination for new projects, shows RBI report 참고).

52) 관련 자료는 조충제 외(2012), pp. 166~179, pp. 191~196, pp. 268~27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큼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도 없을 것이다.

중견·중소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보다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단독투자 및 그린필드 중심의 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작 파트너 및 M&A 정보 제공 및 알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직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아 기업들 간 자발적인 정보 생산 및 중계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KOTRA와 같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민간기업 단체인 가칭 주인도 한국상공회의소를 설치하여 공식 운영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를 설치하여(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India) 운영하고 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주요 도시별 상공회의소 지부를 운영하여 인도 전역에 있는 일본기업의 소재를 파악하고⁵³⁾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정부 간 교류를 지원하며, 인도 정부에 대해 일본기업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제안 등을 하고 있다.

53) 이를 통해 매년 말 일본기업 현황 및 리스트를 파악하여 주인도 일본대사관과 함께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병순. 2008. 『인도의 투자환경 분석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제23집 제1호, 6월 한국경영사학회.
- 김상욱. 2011. 『한국의 중국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동북아경제학회.
- 박민준 외. 2011.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Global Business Report 11-3. KOTRA.
- 송승이, 홍치의. 2013. 『인도기업과의 합작진출 10대 장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 송승이. 2013. 『인도시장 진출전략 10계명』. 한국무역협회.
- 유태환 · 최윤정 · M. Pant · V. Balaji. 2005.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 · 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정책연구 05-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광수 외. 2003. 『한국과 인도의 수교 30년』. 한 · 인도 수교 30주년 기념위원회. 신구문화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2006.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06-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웅 · 송영철. 2012. 『한 · 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전략지역심층연구 1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무섭. 2009.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288호. 삼성경제연구소.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웅 · 정혜원. 201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2-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 은기수 · 박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2011. 『한 · 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2011.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연구보

고서 11-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2011.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세계지역종합연구 11-04-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합뉴스. 『인도, 중국기업 전용공단 7곳 추진』. 2013. 『연합뉴스』. (10월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7. 『2006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1. 『2010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2. 『2011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영문자료]

Anantaram, R. 2004. *The Empirical Determinants of state-wi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Evidence from the Reform Years(1991-2002)*.
Doctoral Dissertation in Syracuse University.

Government of Singapore. 2013. *Singapore's Investment Abroad 2011*. Department of Statistics, Ministry of Trade & Industry, Republic of Singapore.

McKinsey. 2007. *The Bird of Gold: The Rise of India's Consumer Market*.

“Odisha top investment destination for new projects, shows RBI report.” The Times of India. 2013. (Sept. 12)

Park, Y.S. M.S. and. Lim. 2006. “An Empe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by Korean Firm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Vol. 32, pp. 113-161. (December)

Sahni, Pryanka, 2012. “Trends and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ndia: An Emperical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and Technology*, Vol. 2 Issue 8.

SIA. 2011. *Annual Report 2011*.

[온라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데이터베이스. 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menuId=01&subUrl=n_default-test_kita.jsp?lang_gbn=kor&statid=kts&top_menu_id=db11. (검색일: 2013. 11. 2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3. 9. 10)

한국수출입은행 용어사전. <http://www.koreaexim.go.kr/kr/customldic/list.jop>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romotion and Policy. “FDI Synopsis on Country: Country Desk.” DIPP. http://dipp.gov.in/English/Investor/Foriegn_Desk.aspx. (검색일: 2013. 8. 31)

World Bank. 2013. Doing Business 2013.

<http://www.doingbusiness.org/~media/GIAWB/Doing%20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English/DB13-full-report.pdf>. (검색일: 2013. 11. 2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romotion and Policy. “Fact Shee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April 2000 to August 2013.”

http://dipp.nic.in/English/Publications/FDI_Statistics/2013/india_FDI_August2013.pdf. (검색일: 2013. 11. 26)

SIA. 2013. SIA Newsletter XXII No 4. August 2013. http://dipp.nic.in/English/Publications/SIA_Newsletter/2013/aug2013/index.htm. (검색일: 2013. 10. 15)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3/02/weodata/weoselgr.aspx>. (검색일: 2013. 11. 27)

부 록

- 부록 1. 우리나라의 제조업 세부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 부록 2.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부록 1. 우리나라의 제조업 세부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대세계				업종 중분류	대인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1,540	13,163,031	8,547	15.1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0	1,094,832	9,953	45.4 (1)
745	7,785,607	10,450	8.9 (3)	1차 금속 제조업	21	599,045	28,526	24.9 (2)
1,501	4,458,827	2,971	5.1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4	157,247	4,625	6.5 (3)
2,190	3,811,362	1,740	4.4 (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138,771	3,084	5.8 (4)
1,668	3,148,776	1,888	3.6 (10)	식품 제조업	9	109,844	12,205	4.6 (5)
4,252	22,474,776	5,286	25.7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6	70,690	1,964	2.9 (6)
670	2,251,180	3,360	2.6 (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62,315	4,154	2.6 (7)
1,070	2,953,127	2,760	3.4 (11)	전기장비 제조업	15	44,515	2,968	1.8 (8)
1,831	6,562,760	3,584	7.5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	42,475	3,034	1.8 (9)
1,748	3,332,157	1,906	3.8 (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6	19,292	1,206	0.8 (10)
249	542,017	2,177	0.6 (19)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17,129	1,903	0.7 (11)
753	2,191,202	2,910	2.5 (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15,166	1,167	0.6 (12)
396	241,841	611	0.3 (23)	가구 제조업	2	12,450	6,225	0.5 (13)
2,170	1,595,851	735	1.8 (14)	기타 제품 제조업	14	11,331	809	0.5 (14)

부록 1. 계속

대세계				임종 중분류			대인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268	3,702,249	13,814	4.2 (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5,644	5,644	0.2 (15)
932	1,289,888	1,384	1.5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	5,003	556	0.2 (16)
96	1,270,564	13,235	1.5 (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1,900	1,900	0.1 (17)
3,580	3,374,449	943	3.9 (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520	173	0.0 (18)
704	1,164,815	1,655	1.3 (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500	250	0.0 (19)
354	471,492	1,332	0.5 (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95	195	0.0 (20)
159	79,703	501	0.1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제조업			1	124	124	0.0 (21)
442	444,134	1,005	0.5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	101	51	0.0 (22)
27,369	87,358,994	3,192	100.0	합계			373	2,409,091	6,459	100.0

주: 1) 기간은 1981년~2013년 6월.

2) 음료 제조업과 담배 제조업은 각각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18위, 22위의 진출 업종이나, 동 분야는 인도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는 비중 순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0일) 및 투자재구성.

부록 2.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업종별 FDI 현황: 대세계 vs. 대인도 비교

대세계				대인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업종 구분류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10,244	27,891,987	2,723	19.0 (2)	도매 및 소매업	79	198,796	2,516	40.1 (1)
713	19,597,310	27,486	13.4 (3)	금융 및 보험업	4	82,981	20,745	16.8 (2)
185	2,945,973	15,924	2.0 (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56,620	14,155	11.4 (3)
2,238	6,062,574	2,709	4.1 (6)	건설업	53	50,391	951	10.2 (4)
1,087	3,860,331	3,551	2.6 (8)	운수업	21	18,562	884	3.7 (5)
2,664	14,009,374	5,259	9.5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17,737	1,109	3.6 (6)
1,579	941,743	596	0.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14,103	455	2.8 (7)
1,690	5,234,773	3,097	3.6 (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13,673	804	2.8 (8)
1,849	16,793,656	9,083	11.4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12,620	631	2.5 (9)
1,605	697,044	434	0.5 (1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9,255	926	1.9 (10)
549	340,449	620	0.2 (15)	교육 서비스업	12	8,737	728	1.8 (11)
882	1,332,413	1,511	0.9 (12)	농업, 임업 및 어업	5	4,182	836	0.8 (12)
3,528	3,099,131	878	2.1 (9)	숙박 및 음식점업	26	4,086	157	0.8 (13)
693	1,424,967	2,056	1.0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2,450	2,450	0.5 (14)
195	28,179	145	0.0 (18)	N/A	5	734	147	0.1 (15)

부록 2. 계속

대세계		대인도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업종 중분류	신규 법인 수 (개)	투자금액 (천 달러)	평균 투자금액 (천 달러)	비중 (%)
76	33,160	436	0.0 (1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제생 및 환경복원업	1	300	300	0.1 (16)
218	193,837	889	0.1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83	92	0.0 (17)
690	42,218,796	61,187	28.8 (1)	광업	0	0	0	0.0 (18)
30,709	146,725,730	4,778	100.0	합계	307	495,411	1,614	100.0

주: 1) 기간은 1981년~2013년 6월.

2) 제조업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 및 외국기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 생산활동 등은 대인도 투자실적이 전무하며 우리나라의 대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므로 제외하였다.
() 비중 순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3년 10월 30일) 필자 재구성.

Executive Summary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Investment Cooperation

Choong Jae Cho and Yoon Jung Choi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is entering its 40th year in 2013, and while the two countries have engaged i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out the period, there has been an upsurge i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Korea investment into India. This study evaluat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India as part of a review of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flows, in addition to conducting a factor analysis of investment determin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deepen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India.

As of June 2013, the cumulative investment to India from Korea has reached 30 billion dollars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dia has thus become the 17th largest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the amount of invest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ent into effect in 1996. In 2006, Korean investment to India surpassed 100 million dollars, and then soared to 450 million dollars only 5 years after that.

It should be noted that 206 Korean firms out of the 696 companies that have entered India are large corporations whose investments add up to 81 percent of total investment by Korean firms. Manufacturing appears to be the primary sector of Korean investment, accounting for 85 percent of the total

investment. The concentration of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s in fact a stylized pattern of Korea's outward investment flows, as seen in the case of China (78%). However, only two sub-areas of manufacturing, namely vehicles & trailers (45.4%) and primary metal (24.9%), account for over 70% of total investments. Meanwhile,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television and the communication equipment sector, accounting for 26% of total outward investments, does not reach even 3% in Korea's investments to India. Investment in non-manufacturing sectors is also concentrated in a few sectors, in spite of gradual diversification since 2000. For instance, wholesale & retail trade accounted for more than 40% of non-manufacturing sector investment.

Most Korean companies in the Indian market (98%) appear to have local subsidiaries in India; yet 60 percent are wholly-owned subsidiaries. Regardless of the sectoral distinction, manufacturing or non-manufacturing, 'penetrating the local market'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investment.

The performance of Korean investments in India has been good compared to those in China, U.S or Vietnam. The net income of local subsidiaries has consistently ranked between the fourth and fifth since 2009, wh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tarted publishing such statistics. In addition, net exports and trade balance improvement through subsidiaries wa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turn on investment was four times larger than the average return on all outward investment of Korea.

Taking the above facts into account, the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investment in Indi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The test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Indian economy and the amount of Korean investment flows toward India. They also provide confirmation for past survey results, where the majority of Korean companies answered 'potential gains from large market size' as the reason for investing in India. On the contrary, the export amount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flows. Such a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investments suggests that the degree of inter-industry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ill very low.

Meanwhile, the effect of Korea-specific factors such as the sheer presence of voluminous investments by large Korean conglomerates in India, specifically manufacturing-centered firms based in the country, proved rather uncertain. This implies that current investment patterns dominated by conglomerates and manufacturing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investment performance.

With these findings, the paper presents an overall assessment of past investments and futur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expand bilateral investment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pre-emptive investment in the 1990s, Korean enterprises in India became top market players in consumer durables, such as cars and appliances, thereby enhancing the overall image of Korea in India—its products, brands, companies, and even the country itself. Subsequently, these Korean enterprises largely benefited from their strong investment performance in India, reaping incomparable gains relative to other investment destinations.

In the 2000s, however,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investors in India has presented Korean companies with the urgent task of reinvigorating investment activity, to quickly close the broadening gap vis-à-vis other foreign competitors. Once ranked fifth among the top foreign investment sources in India, Korea plummeted to 13th place as of July 2013. For instance, Korea's investment stock in India now stands at a mere tenth of that of Japan.

The weakening of Korean investment inflows to India calls for further involvement from industries and sector-specific private committees. The Government and investment-related agencies should support private entities in this regard. Government support should also be strengthened in areas other than manu-

facturing as in the case of Japan and Singapore. Location of investments should be diversified, away from existing investment hubs in Delhi and Chennai, and towards regional centers in the western and eastern regions. Likewis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intensified.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rder for Korea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burgeon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country. Furthermore, creation of more direct flights connecting major hubs of Korea and India must also come to pass.

Early realization of these goals requires a more efficient bilateral governmental consultative mechanism. In detail, summits, ministerial and private committee meetings need to be held on a regular basis and must be interconnected. In consideration of India's political and government structure,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gradually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state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13년

- 13-0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 강대창 · 김유미
- 13-02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 강대창 · 손성현 · 서영경
- 13-03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 오윤아 · 신민규
- 13-04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 정재완 · 방호경
- 13-05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 이 용 · 송영철 · 이정미
- 13-06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 조충제 · 최윤정
- 13-07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 성한경 · 이상준 · 이순철 · 홍성걸
- 13-08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 제성훈 · 민지영
- 13-09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 제성훈 · 강부균
- 13-10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 민지영
- 13-1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 이정철 · 백준기 · 김재관 · 이남주
- 13-12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 주진홍
- 13-13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 이창수 · 송백훈
- 13-1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 임태균 · 이시은
- 13-15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승일 · 오화석 · 기현서
- 13-16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 · 전혜린

- 13-17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 최필수 · 임민경 · 박재운
- 13-18 한·중등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중등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 양오석
- 13-19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13-20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김은지
- 13-21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 민지영 · 강부균 · 오명훈
- 13-22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통신 / 송영철 · 이정미 · 최원석
- 13-23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인프라, 바이오에너지 / 이재호 · 신민균 · 정윤서
- 13-24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 건설·플랜트, 자동차 / 김진오 · 박미숙 · 유성준
- 13-25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 전혜린 · 장종문 · 류영규
- 13-26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이용호
- 13-27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 이철원 · 이현진 · 강세나
- 13-2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 · 남아시아
- 13-2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 13-3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 · 몽골
- 13-3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터키

■ 2012년

- 12-01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 이 용·송영철
-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 오윤아·정재완·박나리
-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 장준영
-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 강인수·송유철·이호생·한홍렬
-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 이요한
- 12-06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이계영·제성훈·김홍진·간투무르 몽크나산
-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 주진홍
-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 조영관·성원용·이상준·주진홍
- 12-10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 장용규·설병수·황규득·강경화·베텔
-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이진상·변 용
-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 광성일·전혜린·백석훈
-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박미숙·이시은
-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기현·박윤주·김영철·이상현
-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 이권형·손성현
- 12-17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 이권형·박재은·박현도

■ 2011년

-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 이재호 · 박나리
-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강부균 · 민지영
-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 김진오 · 이시은
-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 윤서영 · 박재은
-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 전혜린
-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동남아시아
- 12-2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 12-2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러시아, 몽골
-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 11-1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손승호 · 임정성
- 11-2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 · 이영일
- 11-3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 11-4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재 · 조상민 · 박찬국
- 11-5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11-6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운
- 11-7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 11-8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 신민금
- 11-9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 11-10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 11-11 미얀마 사회문화 · 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래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11-12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 11-13 한 · 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영진 · 김일검 · 김안국 · 홍미희 · 성동기 · 이시영
- 11-14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11-15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 · 이평래 · 윤익중 · 이시영 · S. Avirmed
- 11-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11-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11-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11-1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11-2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11-21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조충제(趙忠濟)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cjcho@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공저, 2011)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공저, 2012) 외

최윤정(崔允瀾)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yjchoi@kiep.go.kr)

저서 및 논문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공저, 2011)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공저, 2012) 외

전략지역심층연구 13-06
연구자료 13-19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 12월 26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02-3460-1142 FAX: 02-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02-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363-6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Investment Cooperation

Choong Jae Cho and Yoon Jung Choi

본 연구는 2013년 한·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 결정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단기에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인도 투자의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